



www.maggun.com

2019.06 vol. 99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9 772383 813003
ISSN 2383-8132



· **채이석** 군장종합건설 대표

· 고 **김천동** 장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 발달장애 기타리스트 **이상현** 군

· **백미라** 오하나 우쿨라이어 지휘자 · **이정애** 예사봉사단 실장

· **채장암** 투병 **이정철**씨가 사는 이유 · 33년 동안 봉사, **이희복 이재희** 부부

· 캘리그래퍼 **류지정** 작가 · **아라섬김 장경희**대표

KSNU

사람으로 세상을 잇다

우리가 꿈꾸는 대학은
순수와 열정으로 세상을 흔드는
학생이 중심인 따뜻한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교육혁신의 선두!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선정
- 국립대학육성사업 선정
-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선정

산학협력의 강자!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선정
- 산업계 관련 대학평가 4개 분야
최우수

글로벌 인재의 요람!

-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선정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
- 신재생에너지사업(대형해상풍력
터빈 해상실증 기술 개발) 선정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ww.kunsan.ac.kr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군산의 동학농민혁명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군산 동학 농민혁명에 물들다

2019. 05.23(목)~09.23(월)
3층 기획전시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GUNSAN MODERN HISTORY MUSEUM

이제는 아이젠카에서!

군산지사장 이 복

010-5265-5061



아이젠카 견적 업체 이달의 **특가 상품 이벤트**입니다.

월렌트로 최저가 선언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별도 납부 없음.

특가 상품은?

이번달 한달동안 업체에서 제공할수있는
최저가 견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특가 상품은 제조사 및 캐피탈사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 마감될수있습니다.

아이젠카만의 차별화

1. "책임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계약 관리 팀 별도 운영

- 계약이후 끝이 아닌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객만족 실현
- 민원 관련 고객센터 운영으로 고객서비스 실현

2. 월 납부로 최저가로 견적을 제공할것입니다

- 한개업체 견적이 아닌 복수 견적중 최저가 업체 견적을 비교 해드리겠습니다.

3. 아이젠카 만의 서비스

- 자동차 전문 상담인력 배치로 고객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전달 제공
- 질문을 남기시거나 문자서비스, 이메일 답변등을 통해서 고객님의 궁금하신 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실수있습니다

4. 국내 렌트사 및 캐피탈사 제휴를 통해 최저가 차량만을 제공하고있습니다.

- 10여개의 렌트사 및 20여개의 캐피탈을 통해 믿을수있는 다양한 차량들을
고객님께 맞춤 제공해 드리고있습니다

5. 차별화된 차량 비교검색



www.newgunsan.kr



새군산신문

NEW GUNSAN WEEKLY

새로운 시민의 대변자

Add. 전북 군산시 장미1길 27 장미빌딩

Tel. 063-445-4700

Fax. 063-442-3883

시민과 함께
꿈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시민이 직접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입니다



 **군산시**
GUNSAN CITY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매거진군산 100호 발행 기념 사진전

2019. **07.11-07.14**

초대일 7월 11일(목) 오후 4시

군산예술의전당 1전시실

2011년 4월 군산사람들의 삶과 생활 이야기를 담아내는 '매거진군산'이 창간되었다.

8년 4개월 동안 씬 없이 달려온 지난날이었다.

군산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인사이거나 어려운 형편의 이웃,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다루는 데 차별하지 않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독자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소소한 항의도 있었으며, 법적 시비 등

불명예스런 일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여 댔다.

지방 소도시인 군산에서 월간잡지를 발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군산의 문화를 만드는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달려왔다.

매거진군산은 지난 100개월을 발판 삼아

새로운 100개월을 가려고 한다.

군산의 문화를 지켜 나가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보내주시는 커버스토리 인물,

이야기 속의 인물들을 뽑아 사진전을

열기로 했다. 많은 참여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주최·주관 매거진군산·새군산신문

문의 (063)445-1856



군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 근대역사박물관 기획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동학농민혁명 125주년을 맞는 올해부터 5월11일이 혁명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5월23일부터 9월23일까지 4개월에 걸쳐 박물관 3층 전시관에서 기획전을 열고 있다. 이번의 기획전은 군산에서의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시대상과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자는데 의미를 둔 것으로, 1부 사람이 하늘인 세상, 2부 농민 개벽을 꿈꾸다. 3부 군산, 동학에 물들다. 4부 녹두꽃 스러진 꿈. 5부 백성 되살아나는 꿈 등 5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번의 기획전에 대해 박물관 관계자는 근대기 군산에서의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함으로써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고 향토애를 함양함과 동시에 동학농민혁명군을 발굴하는데 의미를 둔것으로 근대도시 군산이 외세에 짓밟혀 왕조와 국권이 무너지는 와중에서도 제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폭정과 수탈로 민심을 등지게 된 국난의 어느 한 시기,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기치 속에 외세를 몰아내고 신분과 반,상의 차별을 없앴으로써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당당한 역사의 주체가 되고자 했던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때 성공하는 듯 보였던 이 혁명은 관군과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의해 살육전을 방불케 하는 토벌로 거의 학살됨으로써 농민군의 참패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 따라서 이번 기획전을 계기로 ‘동학농민군’ 속 군산의 연결점에 대한 조명과 현재까지 확인된 49명의 농민군에 대한 기록 등을 전시하여 지난 역사에서 ‘실패한 농민의 난’(동학란)으로 왜곡, 폄하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해석함으로써 이를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여 우리 역사를 바로 알게 하자는 데 취지를 둔 것이라는 부연 설명도 곁들었다. 따라서 이번의 전시회는 시민들은 물론 자라나는 학생들도 꼭 한번쯤은 관심을 통하여 우리 근대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괜찮습니다. 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주시거나 282pyk@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맥군의 오탁을 잡아라!>

이달부터 맥군의 오탁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E-mail_ 282pyk@hanmail.net Fax_ (063) 446-1856

맥군 후원 업체

오죽일식_ 식사권 / 063-464-5625
발렌타인피자_ 불고기피자 테이크아웃 / 063-442-4886
노가리&비어 (수송점)_ 세트안주 이용권 / 010-6542-5782
곱창이최고예요 (수송점)_ 곱창 1인분 이용권 / 050-7900-0803
도마 (수송점)_ 돼지한마리 세트 / 063-471-0023
바나나팩토리_ 커피 음료권 / 063-452-9479
8월의크리스마스_ 커피 음료권 / 010-8928-3481
소셜여행 커피샵_ 커피 음료권 / 063-446-9466
달 커피샵_ 커피 음료권 / 010-9548-3383
철길마을 우리문방구_ 사진매직거울 / 010-3556-2564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이벤트 당첨자

* 응모시 주소, 연락처, 원하시는 상품을 필히 기재해주세요.

지난 호 크로스워드 퍼즐 당첨자

박미자 박승준 박근숙 박지혜 안현일
채리 최규원 박미연 윤상호 신승우
최승욱 하지숙 이성화 조성희 한중수

발행인의 편지

개차반

요즘 세상에서 '개'를 드러내 놓고 욕하는 큰 사람은 없다. 드러내놓고 적대시 하거나 이유 없이 눈총을 주다간 불쌍 사난 일을 당하기 십상이다.

개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가는 게 현실이니 만약 싫다면 외면하면 되지 더 이상은 안된다. 더 나가다간 그 가족들(?)로부터 봉변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만큼 개가 사람 사회에 깊숙이 들어왔으며 그 개의 의미가 단순히 동물이나 애완동물의 의미를 넘어섰음을 뜻한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는 세상인심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으니 그 공허한 자리를 맹목적인 순종 혹은 무한신뢰의 상징인 '개'가 차지하는 건 어쩌면 순리였을지 모른다.

욕 가운데에는 '개' 자가 들어가는 욕이 많은데, 아마도 '개새끼'가 가장 많이 쓰이는 욕일 것이다. '개' 같은 놈(년), '개만도 못한 놈', '개 빠다귀' 같은 '놈' 등 접두사로 '개'자만 넣으면 그야말로 '개 욕'이 되는 셈이다.

어찌 들으면 욕 같지 않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무척 심한 '개 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차반'이다. 풀이 하자면 '개가 먹은 똥'이다. 개똥같은 놈을 이렇게 표현했다.

요즘의 욕은 너무나 전투적이고, 치명적이고, 악랄하다. '개차반'이라는 욕 정도는 말머리를 돌려서 할 줄 아는(?) 사람 행세를 하는 사

람들의 위트 섞인 소리였다.

사람은 입지 않지만 순간순간 미운 짓을 할 때 '거 성질 한번 개차반이네', '술만 먹으면 개차반이야' 라는 말로 쌍(?)스런 욕을 대신했다. 내일은 다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 월명동 근대역사 거리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여러 장애물로 막아 놓는 게 유행인가 보다. 영화동의 한 전시관 앞은 아예 차량들이 서지 못하게 길게 고리를 설치해 놓았고, 마치 '차는 안 돼, 사람만 와'라고 명령하는 것 같다.

주차 구획까지 그어놓은 공용 도로를 버젓이 자기의 소유물처럼 차지했다. 자신의 가게 앞만 깨끗하고 흰하게 하면 부흥회 하듯 손님이 몰리겠거니 하는 것 같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S식당 앞 주차구획에 한 시민이 차를 대자 젊은 주인 아들이 나와 험악한 말투로 "좋게 말할 때 차 빼쇼"라고 했다. "여기가 주차하라는 곳 아니냐"는 대답에 '이 개XX'라는 '개 욕'이 튀어 나왔다. 가게 주인 '부자'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그들 부자에게 묻고 싶다. '승리'해서 기분 좋냐?

이런 엄청난 분들에게는 꼭 '개차반'같은 거시기 라고 해줬어야 하는데....고민 되는 오후다. 돌아보니, 그 식당엔 '모범음식업소'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이견 아니지 싶었다.



발행인_ 채명룡

배포처

매거진군산은 매달 초에 발간되며 아래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
가실 수 있습니다. 발간되는 매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 고우당커피숍 (월명동) 063-443-1042
- 군산CC (옥서면) 063-472-3355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동) 063-443-8283
- 군산시립도서관 (수송동) 063-462-2241
- 기업은행 (나운동) 063-467-6752
- 던킨도너츠 (중앙로) 063-443-7887
- 동군산병원 (경장동) 063-440-0300
- 미다원 (영화동) 063-462-2132
- 산타로사 (은파유원지) 063-462-9062
- 신포우리만두 (장미동) 063-445-0389
- 아리올 웨딩 (조촌동) 063-453-3200
- 오죽일식 (나운동) 063-464-5625
- 좋은사람좋은치과 (수송동) 063-466-2875
- 파라디소페르두또 (은파유원지) 063-471-8525
- 우리문고 (중앙로) 063-445-0031
- 한길문고 (나운동) 063-463-3109
- 호남공인중개사 (중앙로) 063-445-1212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매월 초 발행되며 위 목록의 장소 에서 무료로 가져가
실 수 있습니다. 타지역 및 택배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서
는 홈페이지 www.maggun.com 의 정기구독 코너에 성함, 연락처,
주소와 입금자 성명을 남겨주시거나, 매거진군산 (063)445-1856으
로 연락주시면 1년간 매달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일 년 배송료는 25,000원입니다.

입금처_ 농협 302-9676-8134-21
예금주_ 채명룡

광고문의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
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_ (063)445-1856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282pyk@hanmail.net



Vol. 99 | 2019.06



발행인	채명룡	ml7614@naver.com
디자인	박유경	282pyk@hanmail.net
	이경호	kyungho159@naver.com
주간	오성렬	poi3275@naver.com
편집위원	허종진	hjj1488@hanmail.net
편집위원	김혜진	kimhyejin0324@hanmail.net
편집위원	박청숙	njpcslife@gmail.com
편집위원	신재순	speedal@jbedu.kr
편집위원	이현웅	gunsanmusic@daum.net
편집위원	김정인	jbct20102@jbct.or.kr
컬럼니스트	이복	bok9353@hanmail.net
컬럼니스트	남대진	bitsori454@daum.net
컬럼니스트	운승조	gsforum@hanmail.net

제작_ ICM (063)445-1856
주소_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출판신고번호_ 467-2011-000002
인쇄_ 진영인쇄 (063)446-7801
온라인_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서집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 번호_ 군산 라 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드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아이와 어른을 위한
신재순 시인의 동시로 건네는 안부_ 4

이기고 싶다면

동심을 노래한 시 중 어린이가 쓴 시를 어린이시라고 하고 어린이시와 구별지어 어른이 아이의 마음으로 쓴 시는 동시라고 합니
다. 여기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와 아이가 되고 싶은 어른이 함께 읽으면 좋을 동시를 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안부를 건넵니
다. 편안하신지요. 그리고 부디 편안하시길요.

이기는 법

조소정

짜깁 따지랑 붙어서
홀러딩,
단박에 넘어간 왕 따지

용돈 다 주고 산
새 따지인데
현 따지한테 졌다.

의자 다리 밑에 넣어
현 따지로 만든 새 따지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부드러워야 이긴단다.

- <해가 사는 집>(한국동시문학회, 아평 2014)

신재순
시인 / 한국동시문학회, 전북작가회의 회원





일치기업

군장종합건설

채이석 대표

- 1997년 형 채승석 회장과 창업
- 사업의 근간은 '사람'...우수인재 채용 앞장
- 기본기 탄탄한 회사 만들 것

글 | 김혜진(편집위원)
새군산신문 기자
kimhyejin0324@hanmail.net



2018년 건설의 날,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제 13회 지역신문의 날 CEO대상



2023 세계잼버리 후원 협약

지난 1997년 창업한 (주)군장종합건설(이하 군장종합건설)은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열정을 느껴가면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위해 ‘진심’을 담아 함께할 것”을 다짐하는 ‘알찬기업’이다.

현장 인력 강화와 기술력 확보를 바탕으로 꾸준히 업계의 신뢰를 쌓아 왔으며, 토목과 건축, 전기 분야에서 ISO 9001, 14001 등을 획득한 바 있다. 각종 공장 플랜트 건설 공사와 관공서 공사 수주 등 불황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를 진두지휘하는 채이석 사장은 서류와 씨름하는(?) 나날을 보내면서도 지역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직원 채용에 지역인재들을 우선 선발하고, “사업의 근간은 다름 아닌 사람”이라는 신념처럼 직원들과 함께 믿음 가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뛰고 있다.

모두 ‘어렵다’ 할 때 자리잡다

채 사장이 형님과 함께 건설회사를 만든 1990년대 중·후반은 말 그대로 어지러웠다. 1997년 IMF 당시에는 ‘어렵다’며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모두가 어렵다 할 때를 기회라고 생각한 이 회사는 어려운 시기에 성장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2003년도에는 건설업체로서는 선정되기 어려운 ‘전북은행 유망 중소기업’에 도내 건설업체 중 유일하게 뽑히기도 했다.

2007~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도 한 단계 도약했다. 그리고 2016년 합자회사 형태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했다. 전북 지역에서 선두권을 달려왔던 매출과 수주, 시공능력 평가도 이 기간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주력사업인 토목건축 777억2천700만원, 토목공사업 588억8천300만원, 건축공사업 612억4천300의 시공능력을 가졌으며, 조경공사업 241억200만원, 산업 환경설비 345억3천900만원, 전기공사업 16억700만원 등이다.







채 사장은 “경기가 사업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순 있어도, 경쟁력이 있으면 오히려 훨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서, 건설경기의 오랜 침체 속에서도 군장중건이 군산 대표 건설사로 자리잡을 수 있던 이유를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장중건은 개발사업보다 도급사업을 중시한다. 때문에 도급 분야에 있어선 탄탄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신용평가등급 ‘A-’가 이를 입증한다.

채 사장은 “앞으로 건설경기의 전망이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한다”며, “모두가 어렵다고 걱정할 때 사업을 시작했고, 결국 도약했던 힘을 갖췄기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산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

군장중건은 군산 토박이 형제들이 일구어 놓은 토박이 기업으로서 지역과 뗄 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성산면에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을 일주일에 서너번씩 찾아뵙 정도로 효심이 깊은 채 사장이기에 ‘정도 경영’이 몸에 뻐다.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유능한 일꾼으로 통련하도록 이끌어 줌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을 실천하는 게 이 회사이다.

이 회사는 많은 땀 18명 정도의 지역 대학 출신 근로자들이 일하기도 했다. 젊은 층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군산에서 끊임없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 온 것이다.



채 사장은 “경기 침체 속에서 힘들 수 있겠지만 지역이 잘 돼야 기업이 잘 되고, 근로자가 잘 되는 것 아니겠냐”며 “이러한 믿음 아래 군장중건을 ‘믿을 수 있는 회사’로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3년의 중소기업이지만 지금까지 시공능력에서 전북권에 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열심히 달려 왔다. 회사의 모토인 ‘믿음을 주는 기업’ 이미지가 떠올려 진다.

그는 ‘진심은 통한다’는 말을 믿고 산다. 향후 건설업이 변화의 물결과 거친 풍랑을 맞는다 해도 꺾이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채 사장의 믿음 때문이 아닐까.

꿈이 있으면 도전하라

채 사장은 대학시절 친구 소개로 유아교육을 전공한 주인공 씨를 만나 5년간 연애시절을 거쳐 결혼에 골인했다. 여리여리한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고 지금까지 가슴 속에 소중한 보물을 안고 산다.

그는 인터뷰 내내 아내를 향한 존경과 애정이 담긴 이야기를 했다. “아내는 20여년 전부터 어린이집 일을 하기 위해 꼭두새벽에 밤이 돼서야 집에 왔다.”며 “원장의 몸으로 크고 작은 일을 전부 소화하며 몸이 힘들다 말하면서도 눈빛

은 빛이 났다”고 말했다.

아내는 주중에는 녹초가 되어 있다가도 좋아하는 일을 하 여서인지 월요일 아침이 되면 눈을 반짝 떴다. 현재는 군산 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그런 아내를 보고 그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꿈이 있으면 도전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에게는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조언 했다.

군장중건은 전북권에 위치한 대학(군산대, 원광대, 전북대 등)과 산학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 기술자 양성을 위한 인턴십 및 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군산여성새로일하기 센터와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으로 여성들을 적극 채용하고 있다.

채 사장은 이들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찾아오지 말고 찾아보라’, 그리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라’고 임버릇처럼 말한다.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건설 회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군장중건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고객들의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더욱 튼튼해지리라 기대한다.

채이석 대표 이력

(주)군장중합건설 대표이사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운영위원
군산동고등학교 총동창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겸임교수
전라북도 경영자총회 부회장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26대 이사
군산시 태권도협회 부회장

군산시 골프협회 총무이사(전)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군산시 수송동 주민자치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
신용보증기금 고객평가위원
군산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군산홍남초등학교 운영위원

회사 연혁

1997년 10월 합자회사 군장중합건설 설립
1998년 1월 건축공사업 면허취득
1999년 7월 ISO9002, ISO14001인증취득
2003년 12월 유망중소기업 선정
2006년 4월 우수건설업자지정-법무부
2010년 7월 주식회사 대박엠엔에이 법인설립
2013년 12월 우수건설 경영자상-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년 2월 합자회사 군장중합건설 흡수합병
2016년 3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2016년 6월 전국지역신문협회-CEO대상
2017년 2월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
2017년 7월 2023 세계잼버리 후원협약
2018년 6월 국토교통부장관상-건설의날 표창

'작은 예수'라 불리던 남자,

고 김천동 장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군산 운전기사 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글 | 이진우(특별기고)
jay0810@hanmail.net

어떤 삶을 살면 ‘예수’라고 불릴 수 있을까

예수는 기독교에서 절대적인 신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한 사람을 예수라는 별명으로 부를 수 있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산 사람일까? 며칠 전 필자의 모친은 ‘작은 예수’라고 불리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평범한 개인택시를 모는 운전기사.

평생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살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죽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그저 한 노인의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잊히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 남자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고 김천동 장로



회원들이 고김천동장로를 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고 김천동 장로

그의 이름은 김천동.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소년가장이 되어 가족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이다. 청소년시기에는 대장장이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고,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대 후 택시 운전대를 잡기 시작했다. 군대에 있을 때는 베트남전에도 참전해 제법 돈도 모았다.

그렇게 그 남자는 평범하지 않은,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오히려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한다. 무소유의 가치를 철저히 실행한 사람. 생활고에 힘들어 아파트를 팔아 작고 오래된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가면서도 봉사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생활하는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둘째 딸은 부모를 함께 불러 살았을까.

아내에게 빵점짜리 남자

그의 인생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행적이었으나, 정작 아내에게는 빵점이었다. 슬하에 두 딸과 아들, 그리고 아내를 남겨 두었다. 힘든 봉사의 삶을 살면서 가족을 잘 돌보지는 못했지만, 거짓말처럼 자녀들은 모두 성공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다. 현재 둘째딸은 캐나다에 선교활동을 이유로 떠나 있다.

“여보, 나는 내 몸이 왜 안 아픈지 모르겠어.” 남자는 이 말을 아내에게 자주 했다고 한다. “이렇게 내 몸을 혹사하는데 한군데도 안 아파. 아마 주께서 더 열심히 일하라고 보살펴 주시나봐.”



고 김천동장로와 진병림장로가 목욕봉사를 하고 있다



선교지부현황표 및 사랑의손길 모금현황판



나운동소재 LPG충전소 부속건물을 선교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얼마 전부터, 몸은 고장 나기 시작했다. 머리가 어지럽다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그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치료의 시기가 늦어버린 것이다. 2019년 5월1일, 수요일 목욕봉사가 있던 날, 힘든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는 피곤하다며 TV를 보다가 그대로 힘들었던 세상을 떠났다. 고혈압과 심장질환이었던 것이다.

그는 평생 하고 싶은 봉사를 마음껏 한 삶을 살다 갔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런 남편과 아버지가 과연 아름답고 좋게만 보였을까? 김천동 장로의 삶이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칭송받는 만큼 아내와 가족들이 평생 겪었을 마음고생은 아마 상상하지 못할 만큼 컸으리라 생각된다.

군산에서 시작된 전국 선교회

선교회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요즘 택시기사의 수입이 궁핍해졌다. 한 달에 얼마를 벌길래, 이렇게 열심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말이다. 필자는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를 창피함에 고개를 숙였다. 지금 대한민국 최저임금에도 안 되는 금액. 평균 100만원, 그리고 좀 잘되는 달에는 150만원을 번다. 차량의 감가상각까지 생각하면 실재는 그보다도 훨씬 못 미친다고 한 회원은 말한다.

“대체 어떻게 그 금액으로 생활을 하십니까? 그리고…… 봉사까지 하신다고요?”라고 물으니, 한 회원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이제는 나이 들어 특별히 돈 쓸데가 없으니 그 돈이면 충분히 산다고 말한다. 그저 하고 싶은 봉사를 하면 너무나 행복하다고 한다.

현재 군산의 택시는 천여 대 이상 운행 중이다. 그중 절반 이상이 개인택시다. 현재 선교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박노원 장로는 “이 선교회는 고 김천동 장로가 처음 시작한 겁니다. 김요규, 김홍곤, 김기태, 최재홍, 김명환 등과 함께 1984년에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한다.



회장 박노원 장로



부회장 문종만 장로



강두현 집사



유광춘 집사



이태로 지도목사 (조문동 기쁨의교회)



이용문 장로가 고 김천동 장로 이야기를 하다가 오열하고 있다



오랜만에 회원들을 만난 이용문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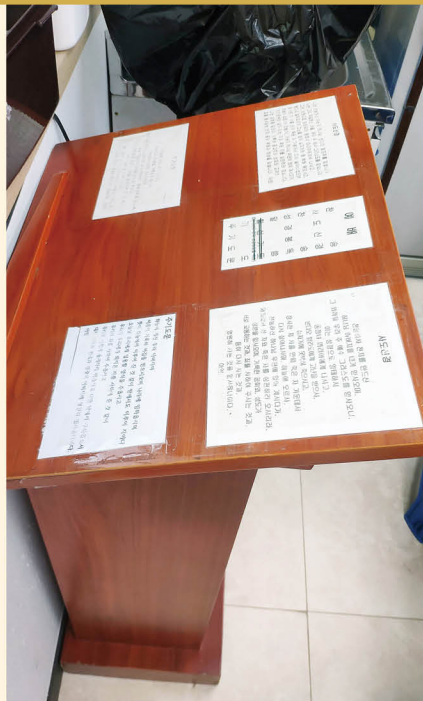
지병진 장로



이백 권사



군산 운전기사 선교회 명판
선교회조직도에는 아직 김천동의 이름이 남아있다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볼때 사용한다

그가 남긴 숙제

그야말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기독교가 조롱받는 시대다. 대형교회 목사들은 축적해 놓은 엄청난 부를 대물림하고 있고, 종교지도자로서 절대 용서받지 못할 성추행 문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과연 우리는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진정 이 세상에 살아있는 예수가 있다면 과연 그런 목사들을 예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필자도 가끔 무소유의 삶을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일이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단정 한다.

우리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무소유의 삶을 넘어, 가진 것을 모두 나눠주고 몸이 부서져라 봉사하는 사람들 말이다.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우리들은 그들에게 빚지고 산다고 생각한다. 그게 어떤 변명이 됐던지 말이다.

선교회의 부회장 문종만 장로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거나, 드러내놓고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인터뷰도 김천동 장로가 살아계셨다면 안했을 겁니다.”라고 애써 웃음을 지어본다.

‘군산 운전기사 선교회’
063-465-4664

대한민국에서 택시운전기사들이 만든 최초의 선교단체다. 처음 조직할 때에 힘들었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선교회의 특성상 수요일과 일요일에 휴무를 가지려고 했지만, 군산의 다른 조합들과 협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었고 시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일도 매우 어려웠었다.

포기 없이 끈기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서 그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한다. 결국 선교회를 만들어 낼 수 있었고 이는 전국조직인 ‘한국운전기사선교회’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었다. 그야말로 군산에서 만들어진 선교회를 시작으로 전북의 시, 군에서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그 활동의 중심에는 고 김천동 장로가 있었다.

한국운전기사선교회는 이미 전국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수원, 성남, 부천, 청주,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기서부, 경기북부, 경기남부, 경북, 경남 등 지방곳곳에 빠짐없이 존재한다.

전국 조직의 시발점 군산, 그리고 얼마 전 곁을 떠난 ‘작은 예수’라 불리던 남자. 우리 군산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역사적 가치이다.



선교회가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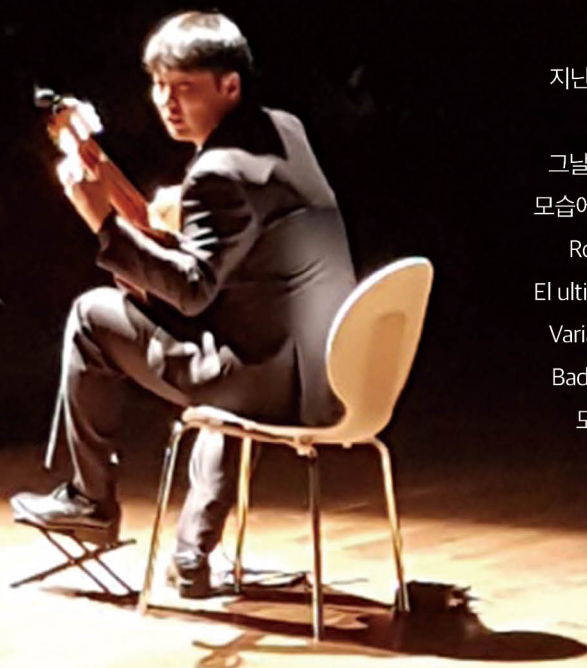
Guitar는 내 삶의 이유이자 행복

발달장애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상헌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지난 5월16일, 인문학카페 '정담'에서 발달장애아 이상헌(27) 군의 클래식기타 연주회가 열렸다. '명곡의 밤' 제하의 그날의 공연은 장내를 가득 메운 청중들 모두 상헌 군의 연주 모습에 시선을 고정한 채 숨죽이며 감동에 젖어든 시간이었다.

Romance de amor, Recuerdos de la Alhambra, Asturias, El ultimo tremolo, B. Mangore, Grand solo op.14 in D major, Variations on the Kanon, Pachevel, Grand overture Op.61, Baden jazz suite, Cavatina 등의 곡들을 연주하는 상헌 군의 모습은 너무도 진지하고 행복해 보였다. 상헌 군은 악보도 보지 않았다.



악보는 그의 머릿속에 있는 듯했다. 청중들은 아낌없는 환호와 박수를 보냈으며, 연주 간간이 상헌 군의 어머니 김경식 씨가 마이크를 잡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들의 성장과 교육을 위해 온갖 고난을 마다않고 헌신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격려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상헌 군은 자폐성 발달장애 3급이다. 8살이 되도록 말을 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며 부모의 애간장은 탈대로 타들어갔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도 미룰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입학 전에 말이 트이는 온갖 사례를 알아본 끝에 '모래놀이'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서울에서 관련 책을 구입,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모래놀이치료에 필요한 '피규어'를 구하는 데만 6개월이 걸리기도 했는데 피규어 마련 후 모래놀이에 필요한 모래상자를 목공소에서 맞춰와 집 앞마당에서 모래놀이치료를 시도하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의 가정환경에다 전문 지식도 없어 어느 것 하나 힘들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과 사랑으로 시작한 모래놀이는 효과로 나타났다. 시작 3개월 만에 상헌 군이 말을 하게 된 것이다. 이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가슴이 벅찼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 고민하다가 아이가 컴퓨터 화면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고 한글 자판기로 글을 가르쳐 3개월 만에 글자와 숫자는 물론 간단한 수학 셈법 공식도 터득하게 되었다. 상헌 군은 한해 늦은 9살이 되어 입학했다.

막상 입학은 했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터라 학교생활은 힘들기만 했다. 그러나 장애가 있는 아들을 흔쾌히 받아준 학교가 고마워 어머니는 1년 동안 매일 아침 교실과 교무실 복도 청소를 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



렵 언어가 터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정서적인 감성도 북돋아줄 요량으로 변두리 사토지에 약간의 땅을 사서 뒷마당에 작은 동물원을 만든 적도 있었다. 토끼, 오리, 칠면조, 닭, 오골계, 메추리, 개 등이 그 작은 동물원의 주인공들이었고, 실내에서는 금붕어, 거북이, 햄스터, 앵무새, 뱀 등을 키웠다. 그리고 부화기를 사서 유정란을 구해 생명의 신비함과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도록 매일 관찰하면서 습도와 온도를 맞춰주며 알을 굴리기도 하는 등 병아리가 태어나기 까지 부화 과정을 지켜보도록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체험하면서 정서적 안정 속에 바른 인성을 함양했던 아들이었던 터라 밖에서의 집단 괴롭힘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러나 믿었던 학교마저도 적절히 대처해 주지 않음으로써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참고 또 참으며 견디는 일밖에 없다는 것에 역장이 무너졌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시간개념이 부족해 매일 아침 등굣길에 시내버스를 태워주는데 어느 날인가 버스타러 나가면서 갑자기 상헌 군이 뇌수술을 시켜달라는 말을 했다. 느닷없는 이 말에 엄마는 의아했는데 반 아이들이 계속 장애자라고 놀리며 괴롭힌다고 그래서 수술로 장애가 없게 해달라는 얘기였다. 그것은 큰 충격이었다. 어릴 가나 항상 무시와 거부, 학대와 편견에 익숙해지고는 있었지만 기타학원에서마저 거부를 당한 것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아픔이었다. 하지만 기타를 어깨에 메고 학원에 다니며 즐거워하던 아들의 모습은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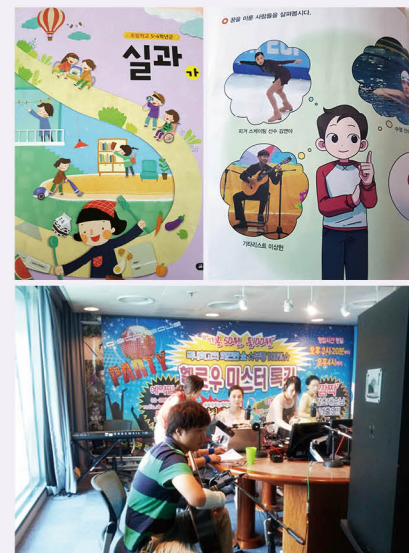
기타리스트의 꿈

엄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모 클래식기타학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때 만난 선생님은 장애를 이해하고 14년에 이르는 지금까지 아들과 함께 하며 지도를 해주는 고마운 분이다. 상헌 군이 기타를 처음 배울 때는 악보를 볼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의자에 단 5분도 앉아있기 힘든 상태였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에 힘입어 기타에 재미를 느끼면서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조금씩 향상되는 아들을 보면서 가족 모두는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기타로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됨에 따라 학교생활과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하루 7시간 이상씩을 연습에 매달렸다. 연습에 집중하며 몰입해 있는 상헌 군의 모습은 무척 행복해 보였으며 어느 곡을 연습하든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기타를 내려놓지 않았다.

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그일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상헌 군이 2학년이 되면서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를 물건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풀었기 때문이다. 교장선생님의 차를 비롯해 학교 선생님들의 차 유리를 훼손하고 과학실 실험도구 등을 망가뜨려 한해에 수십만 원을 배상하는 등 예상치 못한 돌출행동에 엄마는 너무도 힘이 들었다. 복도 유리창을 깨는 일어난 동안 계속돼서 엄마는 학교 행정실에 드나드는 일이 일상이 될 정도였다. 이 무렵 심리치료 선생님이 상헌 군의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었다. 엄마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3개월 동안 점심시간을 이용해

운동장에서 운동을 시켰다. 아들이 어릴 적 가장 힘들었던 한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치료 프로그램들의 덕이라 여긴다. 그러는 동안 상헌 군은 중학생이 되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친구 하나 없는 아들을 보며 엄마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붙이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통기타학원에 보냈다. 그러나 학원 원장은 아이의 장애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1개월 쯤 뒀을 무렵 그만두라는 통보를 해왔다. 부모에게는 또 한 번의 상처였다. 아들의 유치원 입학은 거부당했던 일부터, 학교생활 중에는 아이들의 욕설, 폭행 등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 됨으로

써 그로부터 생기기 시작한 그 상처들은 그간 수없이 끓고 터지고 뒹나고 했던 터라 학원에서의 거부는 또 한 번 엄마의 가슴을 후벼냈다. 아들은 언제나 폭행당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빠와 목욕탕에 감으로써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든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학교 측에 이를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그때마다 상헌 군의 편이 아니었다. 학교 입장에서 문제는 학교라는 소문이 더 두려웠던 듯했고 상헌 군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정확히 못한다는 이유로 매번 가해학생들의 말만 듣고 미온적인 봉합에 그치기 일쑤였다. 사실 엄마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무





수시 1등 대학 입학

진인사대천명이라 했던가, 그토록 열심히 노력한 끝에 상현 군은 평택대학교 수시 1등이라는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그때 부모의 기분은 하늘을 나는 것 같기만 했다. 대학 합격 후 상현 군은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 엄마는 아들이 걱정되어 학교 측에 부탁, 한 달간 아들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기도 했다. 엄마는 평택에서 한 달 동안의 학교 안에서의 생활과 등하굣길 버스와 기차 타는 법 등을 익히게 하고 기숙사에서 배식을 하지 않았던 터라 밥을 사먹는 법 등 아들의 사회성 습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한 달의 기간이 지난 후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상현 군이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대학 2학년 무렵 사춘기를 맞은 아들은 그간 항상 순종하고 반항할 줄 몰랐던 아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모 말을 거역하고 대드는 일들이 늘기 시작했다. 이것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시련이었다. 결국 2학년 때 1년 휴학계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때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준 교수님 한 분을 만났다. 매주 한 번씩 그 교수님을 만나면서 상현 군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1년 뒤 복학,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다.

UN본부 초청 연주와 소프라노 조수미와의 협연

상현 군은 그동안 여러 대회에 나가 많은 상도 받고 신문, 방송 등에도 출연했다. 특히 UN본부 초청 연주를 비롯하여 '아부다비 패럴림픽'에서 소프라노 조수미와 함께 가졌던 연주회는 평생의 추억으로 남고있다. 최근엔 초등학교 5~6학년 실과 교과서 '꿈을 이룬 사람들'편에 실림으로써 같은 환경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 지금도 전국 각지의 초청 연주로 연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현 군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이해시키기 위해 학교에 가서 장애 인식 교육도 하고 있다. 이제 엄마에게 바람이 있다면 아들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연주 무대가 주어지는 것이다.

학력 및 연주 / 수상 경력

문창초, 서흥중, 군산상고, 평택대학교 음대 졸
 2010 전국음악공쿨 클래식기타 2등 수상
 2011 보건복지부 UCC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2012 부활콘서트(용산 전쟁기념관)오프닝 무대 솔로연주
 2013 서울국제기타공쿨 특별상 수상
 2013 서울 장애인종합예술제 보건복지부장관 최우수상 수상
 2014 전국음악경연대회 관현악대상(군산학원연합회)
 2015 평창 뮤직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 솔로 연주
 2015 UN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초청공연
 (그 외 독주회 다수)

방송 출연, 교과서 등재

2010 JT' '피우자 민들레'
 2012 KBS사랑의 가족 1999회 '청춘, 꿈을 연주하다'
 2012 JTBC 휴먼다큐 20회 '당신의 이야기'
 2013 MBC '살맛나는 세상'
 2013 SBS 생방송라디오 '당신은 라디오스타'
 2013 TJB 대전방송 '현장다큐 담'
 2015 KBS 사랑의 가족 2591회 '아름다운 사람들'
 2017 EBS 희망풍경 882화 '기타리스트 상현 씨'
 2019 '아부다비 패럴림픽' 초청 연주
 2019 초등학교 5~6학년 실과 교과서
 '꿈을 이룬 사람들'

연락처 010-6378-1979
 E-mail / jbguitar@naver.com



바람의

여인 '오하나 우쿨라이어' 백미라 지휘자



- 음악적인 봉사는 '나의 꿈, 나의 길'
- 우쿨렐레에 실어 보내는 지휘자의 꿈

글 | 채명룡(발행인)
cmr0118@naver.com



우쿨렐레의 씨앗을 뿌리다

그녀는 바람도 많이 땀도 많이 흘렸지만 천생 지휘자였다. 한 때 어린이 합창단과 어머니 합창단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고, 각종 공연 무대에 세우면서 역량을 인정받은 그녀였다.

오직 합창을 위해 온 몸을 던졌던 지난 10년이였다. 그 이후 다시 열정을 담아 새롭게 도전했던 우쿨렐레 지휘자로서의 10년이 지나고 있다. 벌써 강산이 두 번 바뀌었다.

작은 시련은 그녀를 강하게 했고, 또 다른 공부를 통하여 음악의 길을 열어갔다. 클래식에서 반 발짝 비껴선 우쿨렐레의 세계였다.

오늘의 그녀는 조용히 '나의 길'을 걸어가는 진짜 음악인이 되어가고 있다.

성신여대에서 음악을 전공한 백미라 지휘자, 25년 전 '군산 덕'이 되어 군산과 함께 익어가는 그녀의 소리는 파랗게 넘실대는 '보리밭 사잇길'을 닮았다.

어린이 합창단과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로 우뚝 섰던 그녀가 군산시민예술촌에 '오하나 우쿨라이어'라는 합창연주단체를 만들고 새롭게 시작했다.

섬세한 음악에 즐기는 마음을 더하면서 무척 기대되는 발걸음이다.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우쿨렐레 합창단원들의 공연



어린이 합창단 지도하는 백미라 지휘자



백미라 지휘자가 지도했던 어린이 합창단



우쿨렐레와 함께 새로운 음악 세계를 간다



시간여행 축제에서 우쿨렐레 공연



어린이 합창단원들과 공연

세상에 빛이 되라 '나의 딸'

“저는 세상에 나오기도 전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음악으로 봉사하겠다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 제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하시거든요.”

오늘의 '백미라'가 만들어지기 까지 세상의 어머니들이 그려왔듯이 그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희생이 있었다.

“음악으로 못 이룬 꿈을 자식에게서 이루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예쁜 딸을 주시면 음악으로 하나님께 평안드리는 데 쓰이도록 하겠다.'고 해서 저를 잉태했다고 하셨습니다.”

태어나서 석 달 열흘 동안 눈도 뜨지 않고 울기만 했다. 주변 사람들이 '애는 크면 노래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

서울집이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있는 부근이어서인지 교회에는 유명한 교수님들이 다녔다. 수준 높은 성가대 찬양을 보고 들으면서 음악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다.

이대부속초를 거쳐 성신여대 성악 전공으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음악 공부가 이어졌다.

“대학 새내기 때 목사님의 도움으로 교회 성가대를 지휘했어요. 단원들의 하모니를 들으면서 조화를 맞추는 새로운 세계를 접했지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겨나갔어요.”

교회 성가대는 그녀의 첫 지휘자의 길이었다.

서울 색씨가 '군산댁'이 되다

성악을 해서 성공하기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건 전공하는 사람은 더 잘 안다.

“어쩌면 '나는 성악가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 미리 지휘자를 염두에 둔 행보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1990년대 초 성신여대와 헝가리 리스트 음악대학이 자매결연 맺었고, 그녀는 교환 학생으로 뽑혀 유학을 갔다.

“동유럽에서 유학하면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환경 속에서 레슨과 수업을 통해서 신비한 음악세계를 접했는데,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구나'하고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여러 페스티벌을 찾아다니면서 음악적 견문을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강입준 시장에게 감사패를 받기도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어린이 단원들



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연주하는 어린이 단원들

지난 1995년 남편이 군산의 한 기업체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면서 군산으로 이사 왔다. 처음엔 1년만 살자고 왔는데, 벌써 25년이 되었다. 서울 색씨가 ‘군산댁’이 된 셈이다.

2002년 연년생 아이들이 지곡초에 들어갔고 그 인연으로 처음 아이들 합창단 일을 맡았고 이어 교육청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를 했다. 어린이와 어머니 합창단이 일취월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쿨렐레’로 나의 길을 간다

“정통 클래식을 성악으로 전공한 이후 30여 년 동안 현역에서 활동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제 동문들 중에서 현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쿨렐레 연주단체 리더로 자리 잡으려 하는 백미라 지휘자는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려는 꿈에 부풀어 있다.

“세계무대를 겨냥해서 트레이닝 하고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연주 단체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그 무대를 통하여 한국과 군산을 알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아무도 하지

않는 종목인 우쿨렐레를 직접 반주하면서 합창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하거든요.”

또 “합창이란 목소리를 브랜딩을 하는 일인데 여기에 우쿨렐레로 반주를 하다보면 화음을 넣고 빼고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라는 말도 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악기에 노래를 이어 붙여서 음악을 만들고 무대에 올리려는 연습과 훈련, 강습 등이 이어지는 과정이 직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높다. 음악인들 대부분이 겪는 취업 절벽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공연 활동뿐만 아니라 강사로서 강단에 서면서 생업이자 직업으로 성장시켜주는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군산대 음대와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부전공 과목으로 우쿨렐레 강좌를 개설하는 방안도 노크해 볼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역 대학과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같이 만든다면 무척 신나는 일이 될 것 같다.

즐거운 음악, ‘우쿨렐레’와 인연

“이 음악을 접하면서, ‘음악이란 이렇게 가볍게 접하고 즐겨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클래식을 전공한 저부터가 그 길이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물론 존중받아야 하지만 가볍게 다가서는 일도 중요합니다.”

군산에 우쿨렐레의 씨앗을 뿌린 그녀의 노력이 지금은 여러 곳에서 강좌가 만들어지는 결실로 이어졌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쿨렐레를 방과 후 학습으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배워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2013년도에 군산대 평생교육원 과정에 자격증 과정을 만들었다. 지도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이어졌다. 그런 욕구들을 모아서 시민에 술존에 ‘오하나 우쿨콰이어’라는 합창연주단체를 창단했다.

지난 5월 할머니·할아버지, 아빠·엄마, 손자들이 함께하는 ‘3대가 함께하는 연주회’도 이런 우쿨렐레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일이다.

“아무것도 몰랐던 분들이 성장해서 악기를 다루고 연주를 하는 걸 보면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정통 클래식에 비하면 음악적인 성취 측면에서 비록 적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뭔가 음악적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데에 보람을 느끼지요.”

오늘 그녀는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음악적으로 봉사할까 고민한다. 어깨에 힘만 줄 게 아니라 보통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오로지 음악만 보고 살아왔던 날들이었어요. 지휘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20여년의 삶이 있거든요. 우쿨렐레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음악적인 봉사의 길을 갔듯이 또 다른 봄날이 오지 않을까요.”

중동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는 일처럼 ‘우쿨렐레’를 우뚝 세우고 합창단 지휘자로서 묵묵히 봉사의 길을 가는 그녀를 응원한다.

‘오하나 우쿨콰이어’ 공연 및 군산대평생교육원 문의
백미라 지휘자 010-4246-3184



공연 연극 활동



연습실에서 단원들을 리드하는 백미라 지휘자

7년째 급식봉사

(사)예사봉사단 이정애 실장

- 서군산무료급식소의 숨은 일꾼
- 일요일·공휴일 뺀 나머지 시간 봉사에 올인
- 몸 허락할 때까지 봉사에 전념하고파

글 | 김혜진(편집위원)
새군산신문 기자
kimhyejin0324@hanmail.net



조리하는 이정애씨

날씨가 차츰 더워지는 2019년 5월 말 오전 11시 50분경, 산북동에 위치한 서군산무료급식소는 점심을 준비하는 봉사자들로 분주했다. 열명 남짓한 봉사자들이 식사 준비를 위해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이 급식소는 앞치마를 질끈 둘러 맨 (사)예사봉사단 이정애 실장(64)의 소중한 보금자리기도 하다.

7년째 이곳에서 점심 봉사를 돕고 있는 이 실장은 이 날도 어김없이 “어서 오세요~ 든든한 한 끼 드시고 가세요”라면서 어르신들의 주름진 손을 이끌었다.

셔틀버스에서 내리거나 인근 아파트, 주택에서 걸어 온 몇몇의 어르신들은 “잘 먹고 가겠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지난 2013년 (사)예사봉사단이 생

겨날 때, 연탄봉사와 도시락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아직도 그 때의 기억을 갖고 살아요.” 이 실장은 일렬로 줄 서 있는 어르신들에게 손수 만든 한 끼의 밥을 제공하는 일을 계속했다.

산북동에 소담스럽게 위치한 (사)예사봉사단 서군산무료급식소.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의 밥상을 지켜 온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정애 실장은 인터뷰 제의가 들어오자 “감사하지만 한편으론 부끄럽다”고 했다. 잘 알려지지 않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다. 하지만 세상은 소시민들의 작은 움직임으로 돌아간다.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봉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워질 무렵, (사)예사봉사단 서군산무료급식소를 찾

아 그녀를 만났다.

(사)예사봉사단 서군산무료급식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잠시 문을 닫는다. 어르신들은 매일 200여 명, 많을 땐 300여 명까지 이곳을 방문한다.

이 실장은 매일 아침 급식소에 도착해 밥을 식재료를 손질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밥 뜸이 들고 반찬이 만들어지면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몰려들기 때문에 쉴 틈이 없다. 식당이 꽉 찰 때까지는 정신없는 시간을 보낸다. 식사 후 청소, 설거지까지 끝나야 비로소 한 숨 돌린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 다시 급식소 문을 여는 생활을 시작한다. (사)예사봉사단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사위 김치영씨 또한 봉사단의 일을 꾸준히 할 정도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앞장 서 왔다.



음식을 준비하는 이정애 실장



어르신들에게 국을 퍼드리는 이정애씨



(사)예사봉사단 사랑의 밥차



예사봉사단 사랑의 밥상 나눔터 앞에서



어른들의 식사를 살피는 이정에 실장



눈높이를 맞추며 안부를 묻는 김민재 예사봉사단장

(사)예사봉사단 봉사자들도 “매일 급식봉사를 한다는 건 웬만한 성의로는 안되는 일”이라며 고마운 마음을 말했다.

이정에 실장은 평생을 주부로 지내다 교회에 다니면서 우연한 계기로 봉사를 시작했다. 2013년 (사)예사봉사단이 생긴 직후 연탄봉사를 시작했다. 추운 겨울 연탄 한 장에 의지해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보고, 뒤돌아서 눈물을 흘렸다. “어르신들이 한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연탄을 날랐어요. 그때 ‘지속적인 봉사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녀의 봉사는 반찬 배달로 이어졌다. 매주 1회 50여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직접 만든 반찬을 전했다. 김치, 잡채, 버섯볶음 등 어르신들이 좋아하면서도 건강한 음식들을 담아 전달한다. 그리고 “잘 드시고, 건강하세요” 라며 안부를 묻는다.

“저는 음식을 만들었을 뿐인데, 그분들은 누군가가 안부를 묻고 자신을 챙겨주는 걸 감사히 생각해요. 그럴 때 ‘이 맛에 봉사한다’는 뿌듯함이 생깁니다.”

반찬 봉사는 급식봉사로 이어졌다. 200~300여 명의 어르신이 매일 방문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일손을 돕는다. 주말에는 학생들도 동참한다.

“매일 봉사를 한다는 건 그야말로 ‘행운’이지요. 건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가족들은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60대 중반이니 쉴 때도 됐다고’ 말해요. 그런데 전 몸이 허락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평생을 봉사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갈 그녀에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 때 가장 기분이 좋다고 한다.

“봉사를 처음 할 땐 힘들기도 했어요.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다 보면 정신이 없어지는데 찰나의 순간 손가락을 베이기도 하고, 일이 꼬일 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질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봉사에 익숙해졌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실 땐 괜스리 뿌듯하기도 해요.”

이 실장은 “7년째 봉사를 하니 이제는 어르신들이 꼭 이 옷 같다”고 말했다. 어르신들도 일손이 부족할 땐 자원봉사자들을 도와준다고 했다.

힘들 때도 많지만 하다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 지는 게 봉사라고 말하는 그녀에게 정겨운 사람 향기가 난다.



딸과 함께



예사봉사단 단원들과



음식을 만드는 이정에씨와 예사봉사단 김민재 단장



손녀와 한 때



이정에 실장

췁장암 투병 이정철씨가 사는 이유

- 나의 유일한 직업은 '재능 봉사'
- 'E·G프렌드연예예술단'의 소외된 이웃 찾기

글 | 채명룡(발행인)
cmr0118@naver.com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이정철씨

재능은 개인의 타고난 능력 또는 습득한 전문적 기술, 지식을 일컫는다. 반면, 자원봉사는 서비스, 권익 옹호, 정책 등 자유로운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타인을 상대로 펼치는 행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두가지 개념을 하나로 묶어 공익적 목적으로 타인을 상대로 자신의 타고난 재능이나 습득된 전문성을 나누는 "재능나눔(봉사)"의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예술적 능력을 가진 개인이 그 재능으로 서비스 활동을 하고, 정책입안 전문가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이웃'을 위한 자선적 측면이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의적 측면이 강했지만, 자원봉사의 새로운 흐름은 '이웃'사회'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나'의 여가 시간이나 다양한 경험 혹은 스스로 위로받기 등 '나'의 만족도와 같은 내부적 측면에 더 관심이 갖고 있다. (2014 자원봉사 실태조사 / 한국자원봉사문화, 행정자치부)

결국 현대의 재능나눔은 '나눔의 삶' 자체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삶의 태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매스컴과 SNS를 보면 봉사하는 사람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가진 재능과 삶 전부를 봉사에 쏟아 내는 이는 흔치 않다.

췁장암 투병하는 이정철씨가 살아가는 이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하는 삶에 회의가 들었지요. 너무 아프기도 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병 치료에 지쳤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왕에 해보는 일, 살아보자'하는 용기가 생겼더라고요"

췁장을 성형해서 수술하고 삶을 이어가는 이정철씨의 심정이 그랬다. 대형 병원에만 20차례나 입원하고 대수술만 5차례나 받을 정도로 중병을 앓아온 그는 지금의 삶이 마

치 '기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

그런 가운데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힘든 길을 가는 그는 어쩌면 돈키호테가 아닐까.

이정철씨(47세)는 세상에 내보일만한 명함 직책은 아무 것도 없다. 단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그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과 생명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가 살아가는 이유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가진 그대로, 할 수 있는 만큼의 봉사이기 때문이다.

그는 2010년 췁장암으로 5곳의 절개수술을 받았다. 급성 췁장염 증세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 왔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폐의 한쪽 기능을 상실하여 폐에 물이 차는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여전히 4개 과목의 병원을 다니며 치료 중에 있다. 그런 가운데 음향을 손보며 건반을 치면서 참여 하였던 연예 봉사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E·G 프렌드 연예예술단원들과 함께



연예 봉사의 곳은 일인 음향을 책임져 온 이정철씨

2015.08.03

“제가 살아가는 힘은 오로지 음악에 대한 열정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봉사가 주는 행복입니다.” 라는 그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사는 날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인 음악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일을 계속할 터”라고 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해서 독학으로 악기를 연습하여 1993년부터 밤무대에서 음악생활을 하였다. 이후 IMF로 인해 고향 비안도로 들어가게 1998년부터 2004년 7년여 비안도발전소에서의 기능직 7급으로 일했다.

기능직으로 7년간 근무하다 췌장암 수술 후 병원치료와 생계를 위해 다시 밤무대에서 연주활동을 하게 됐다.

“췌장암 수술 후, 건강이 최고의 행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행복을 더

불어 사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E·G프렌드연예예술단’을 결성하고 어둡고 힘든 곳을 찾아다녔지요.”

은퇴한 연주자와 현역으로 활동하는 연주자, 무명가수, 음악이 좋아서 취미로 하는 사람들 등 20여명이 모여 연주활동을 통해 삶을 나누고 사랑을 다져 나가면서, 이 사회에 그들의 재능을 나누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음악을 통해 기쁨 전달

“비영리모임인 ‘E·G프렌드연예예술단’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요. 단지 공연을 통해 무명가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예술단원의 높은 연주실력을 홍보하면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음악을 통해 잠시라도 기쁨을 전하

는데 그 목적이 있지요.” 이정철씨는 건반연주자이면서 사무국장으로 행사와 봉사를 위한 온갖 굵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연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회원들과의 화합을 위한 관계형성에 힘을 쓰고, 음향을 직접 설치, 관리하는 음향 엔지니어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다.

그동안 비안도, 연도, 신시도 등 주민 화합의 지역행사와 장수군 강선암 연주, 장애시설 ‘목양원 봉사’ 등 활동하였고, 현재는 ‘서수 효도의 집’에 격월로 음악봉사를 하고 있다.

특히 효도의 집 봉사는 회원들이 회비를 모아 음료와 간식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재능만으로 봉사하는 성취감을 넘어서 부모님을 섬기는 사랑의 마음들이 모여져 2년째 진행할 수 있었다.



연습실에서 회원들과 프로그램 논의



이정철씨의 봉사 현장



연예 예술단원들과 봉사활동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예봉사 활동

예술단은 앞으로 시, 도 협찬을 받아 “섬 주민 화합한마당”을 연 6회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섬 투어공연, 작고 소박한 시골공연도 계획하고 있다.

비안도 출신인 그이기에 섬 만큼이나 문화와 예술에서 소외된 주민들에게 마음이 가고, 그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연주봉사를 기획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투병 중에도 계속되는 연예 봉사

이정철 씨는 여전히 투병 중이다. 일상생활도 힘들지만 그의 손길이 필요한 봉사 현장에 어김없이 등장한다. 류마티스로 인해 손과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무거운 음향기구들을 끌면서 운반하고 설치하면서 뛰어다닌다.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 이정철씨의 현실적 장벽은 그의 몸을 짓누르는 병마가 아니다.

특히 예술단을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여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 행사에서 받는 최소한의 수고비는 음향설비 대여비와 참가 회원의 식사비용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음악을 좋아하고, 뇌졸중과 급성신장염으로 쓰러지면서까지 봉사하고 있는 회원들의 열정과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그는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라며 밝게 웃는다.

사람은 제각각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재능도 모두 다르다. 또 학

생으로, 누군가의 자녀로, 부모로, 직장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자원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나의 역할이다. 또한 나의 가치, 나를 찾아가는 방법이며,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삶 그 자체다. 자원봉사를 하면 할수록 삶과 사람을 더 깊고 넓게 바라보게 된다. 우리가 행복한 혹은 불행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이다.

어떤 환자는 아무리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했어도 자기 육체의 선행을 통해 오는 만족감을 통해 쉽게 건강을 회복한다.

- 히포크라테스 -

“E·G프렌드연예예술단” 후원계좌
농협 301-0195-9323-51
EG프렌드연예예술단

고향 비안도 발전을 위해 땀흘리기



목양원 봉사활동



연도 마을 한마음 잔치



33년 동안 봉사

이희복·이재희 부부

- 군산 최초 '올해의 부부상' 수상
- 소리없는 기부는 부부의 아름다운 동행

글 | 김혜진(편집위원)
새군산신문 기자
kimhyejin0324@hanmail.net



사랑하는 동반자와 오랜 세월동안 봉사하며 사는 일은 얼마나 뜻깊을까. 각자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동행을 해 온 이희복(62·군산엘소아과 겸진실장)·이재희(56·군산시보건소 계장) 부부.

5월 21일은 부부의 날(couple's day). 가정의 달 둘(2)이 하나(1)가 되는 의미를 담았다.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해 온 이 부부는 지난 5월 16일 세계부부의 날을 맞아 '올해의 부부상'을 수상했다. 전북에서는 두 번째, 군산에서는 최초 수상이다.

이희복, 이재희 부부의 소리 없는 봉사는 말 그대로 조용히 이루어져 왔다. 꽃동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노인요양시설, 유니세프 등 다수의 후원 단체에 30년 동안 기부해 왔다.

이 부부가 봉사와 인연을 맺은 건 남편의 이름없는 봉사 때문이다.

“신혼시절 남편 희복씨가 꽃동네에 이름없이 봉사의 손길을 쫓아오. 그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90년대 초반부터는 함께 손잡고 봉사하러 다녔거든요. 뭔가 가슴에 여운이 남고 뿌듯한 기분이 오래가더라고요. 이후로는 어린이재단, 노인시설 등 각종 단체를 도우려고 했지요.”

최근에는 기아 및 결혼이주여성, 결손 가정을 돕는 단체 등 각각 10개 정도의 후원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부부의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일을 해 온 것이다.

이웃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하고, 부부가 손을 잡고 봉사를 했더니 올해에는 뜻하지 않게 '올해의 부부상'까지 받게 됐다.





올해의 부부상은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화합과 사랑으로 자녀교육에 성공하며 사회봉사 활동 등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모범부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두 부부의 만남은 1985년 임실보건지소에서 시작됐다. 스물 아홉 살 방사선사인 이희복 씨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임실보건소에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임신행을 택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간호대를 졸업하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스물 셋의 이재희 씨에게 마음을 뺏겨 버렸다.

그 당시 희복씨는 스물 아홉은 노총각이었다. 나이 차이에 주저하기도 했지만, 끌리는 마음을 어찌 할 순 없었다. 희복 씨와 재희씨는 시간을 내 같이 여행을 다니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임실에서 울산으로 직장을 옮기고, 그곳에서 얼마 안 돼 희복씨에게 군산의료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 군산에 터를 잡은 이들은 1986년 11월 9일 1년간의 연애 결실을 맺게 됐다.

그때 희복씨는 서른, 재희씨는 스물 네 살이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은 가족, 친척, 친구들 앞에서 평생 믿고 사랑할 것을 약속했다.



연애시절



아들, 딸과 함께

딸 이주희(32), 아들 이진우(29)도 부부의 모습을 배우고 자랐다. 사랑받는 가정에서 배우는 기쁨을 배웠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다 하고 있다.

희복, 재희 씨는 “자녀들이 행복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했다. 최근에는 손주가 생기는 큰 기쁨을 누렸다.

두 부부는 봉사의 발걸음에 더해 손잡고 뛰는 일을 좋아한다. 운동 매니아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부부 마라토너’로 불리는 데 익숙하다.

건강을 위해 수영, 테니스, 스쿼시 등 각종 운동을 시작했고, 1998년 조깅에 발을 들였다. 그 후 2002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다.

17년간 전국부부가족마라톤대회에 이웃 주민과 함께 참가해 왔고 조직위원으로 가족 사랑과 화합을 키워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결혼 후 강산이 세 번 바뀌고, 두 부부의 얼굴에는 주름이 하나씩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 부부는 님는다더니, 이희복, 이재희 씨 부부의 ‘웃는 얼굴’은 많이 닮아 있었다.



마라톤 대회

글씨에서 찾는 행복

캘리그래퍼(Calligrapher)
류지정 작가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언제부터가 일상에서 쓰는 이의 개성에 따라 한글 글자체가 다양한 멋스러움으로 변화하고 있다. 캘리그래피(Calligraphy/이하 캘리)로 통용되는 이 글자체는 '손으로 그린 문자'라는 뜻이나, 조형상으로는 의미 전달의 수단이라는 문자 본래의 뜻을 떠나 유연하고 동적인 선, 글자 자체의 독특한 번짐, 살짝 스쳐가는 효과, 여백의 균형미 등 조형의 관점을 중시하는 게 특징으로서 작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손맛글씨'라 일컫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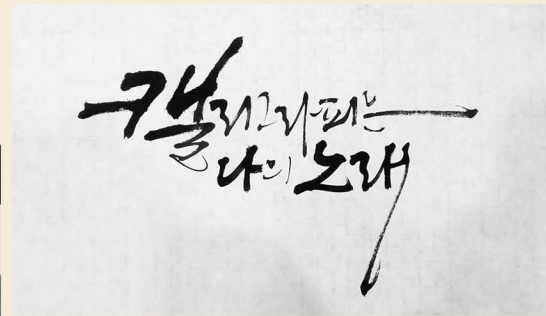
류지정

글씨에서 찾는 행복

며칠 전 이당미술관에서 봄 기획전으로 열리고 있는 '일상의 작업, 일상의 행복'전에서 류지정 작가를 만났다. 이 전시는 영화동 일대 공방 작가들의 활동과 작품을 조명하고 지역 공방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기획한 것으로 가죽공예, 목공예, 세라믹핸드페인팅, 아프리카박스, 도예, 스트링아트, 캘리 등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적 캘리와는 다른 느낌의 작품이 눈길을 끌어 낙관(落款)을 보니 류지정이라 되어 있다. 그녀의 글씨에서는 생동감이 넘쳤고 대체로 예쁘게만 쓰기 마련인 여느 작품들과는 뭔가 다른 다이나믹함이 느껴졌다. 류 작가는 그곳에 있었다. 미인 형 외모의 그녀는 월명동에 '류지정캘리그래피연구소'를 열고 있는 작가라 했다.

류 작가가 캘리에 입문한 것은 불과 3년 전인 2016년도다. 그럼에도 그녀의 실력이 일취월장을 거듭한 것은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후 인테리어 설계기사 자격을 취득했을 정도로 미적 감각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본래 한글은 궁체를 기본으로 하며 글씨 쓰는 이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주는 정도이고 최근엔 인터넷상으로 수많은 글자체가 만들어져 클릭 한번으로 쉽게 골라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렇듯 정형화된 서체, 또는 인스턴트 서체와는 달리 캘리는 수묵 등으로 개개인이 직접 손으로 쓰는 글씨라는 점에서 서예의 또 다른 장르로 자리 잡으면서 확산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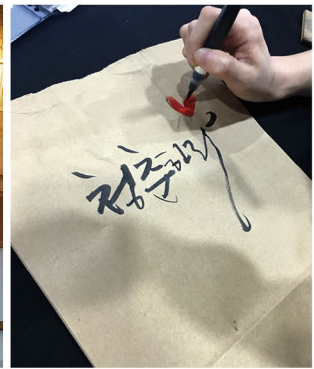
그녀는 군산시 평생학습 동네문화카페에 출강도 하고 있으며 토요일 운영되는 거리 프리마켓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판매도 하고 있다. 공방에서의 현재의 수강생은 약 30여명 정도인데 개인별 수강일은 주1회 본인이 선택, 초급과정의 경우 12주 기간 동안 1:1 맞춤수업으로 진행한다. 그러다보니 그녀의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국내유수의 보험회사 등에서 특강신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강의와 함께 교도소에도 재소자 대상 강의를 나가기도 하며 자원봉사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점차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다.



국내 한글 서예 판본체 글씨가 처음 소개 된 것은 1972년부터 22년간 세종대 회화과 교수와 국전 심사위원을 역임하고 대통령상을 수상한바 있는 서예가 평보(平步)서희환 선생에 의해서가 아닌가 한다. 그의 한글 서체는 장중함과 엄숙함, 그리고 안정된 고요함을 느끼게 하며 한글 창제의 정신과 사상이 스며든 듯한 느낌을 줌으로써 평보체라는 독보적 경지를 일군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서체였다. 그는 생전에 수많은 현판, 제호, 금석문 등 실용서체로서의 서적과 저술을 남기기도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한글 캘리의 효시가 아닌가 한다. 지금의 캘리는 컴퓨터가 확산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붉은악마 티셔츠 등에 캘리체 글씨가 등장한 것이 계기가 된 듯하다.

그녀가 캘리의 매력에 빠져들고 더욱 매진하게 된 것은 캘리 입문 직전 기독교신앙을 가지게 되면 서부터다. 가슴에 와 닿는 성경의 구절과 삶의 지침이 되는 금언들을 쓰는 것에 기쁨을 느껴 꾸준히 연습하다보니 붓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실력이 늘었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작품을 소개할 기회도 갖게 되었는데 올해 1월 천안의 모 교회에서 초대전 제의를 받고 '마음전'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그리고 2월~4월 까지 인천에서도 초대전을 가진바 있다.





그녀에 따르면 공방 위치가 관광객이 많이 다녀가는 초원 사진관 부근이다보니 때문 SNS에서 알게 된 관광객이 그녀를 알아보고 말을 거는 바람에 사귀게 되는 일도 있다면서 캘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야로서 스스로에게 성취감을 주고 가르치는 보람 역시 크다고 말한다. 특히 본인의 글씨에 힘이 있다는 칭찬을 받을 때 행복하다는 귀뜸도 해주는데 어떤 내용의 글을 쓰느냐에 따라 운필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인다. 노후에 걱정 없을 것이라며 주위에서 부러워하기도 한다는 그녀에게 이제 소박한 꿈이 있다면 끊임없는 절차탁마(切磋琢磨)로 청출어람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근사한 전시회를 여는 것이다. 더불어 자신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한국수묵캘리그래피협회 전북지회의 인가가 하루 속히 실현되는 것이다.

류지정캘리그래피연구소
군산시 구영2길 2 (신창동)
HP.010-2461-0107





3대 운영 진포상회

장경희 대표

글 박남혜(특별기고)

아라섬 김

아라는 바다의 순 우리말로서 바다 섬의 건강한 김을 뜻한다.

김 생산지는 군산 개야도. 해수와 육수가 만나 서해의 황금 갯벌의 풍부한 미네랄과 단백질 등 많은 영양을 품고 있어 어느 지역의 김보다 그 맛이 뛰어나다.

또한, 직접 기르고 제조, 가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챙겨보는 모습에서 음식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깊어지게 한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90ha에 달하는 양식장에서 영양과 맛의 최상점을 찾아 채취하고 생산, 가공하는 열정이 오늘의 진포상회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음식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로 인해 건강이 가져다주는 소중함을 누구 보다 잘 알기에 힘들지만 고집스러운 공정을 변함없이 지켜나가고 있다.

생산지 관리를 위한 바쁜 일정은 지켜보는 이의 우려를 자아내지만, 가공, 판매를 위한 여러 타 지역의 일정과 생산지를 오가면서도 지친 모습 없이 항상 밝고 힘찬 음성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다의 싱그러운 향기를 전해주는 모습은 마치 바다의 당찬 여장군 같은 든든함을 보여주는 것 같다.

직접 경영을 하면서 깨어 있고 소통을 위한 Open Mind로 회사 운영에 남다른 넓은 시야를 갖고 있기에, 위기감 또한 놓지 않고 김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개발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Idea를 위한 노

력을 기울리 하지 않는 장경희대표는 “신뢰 받는 상품을 위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 “두려움을 넘어 한발 한발을 내딛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고, 항상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기에 기업도 개인도 끝없이 변화하고 노력하며 변화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사업가로서 순간의 무게 또한 진지하게 전해 주며 선택은 순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결과가 평생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언급하는 모습에서 사업가로서 놓지 말아야 할 위기의식 또한 늘 품고 있음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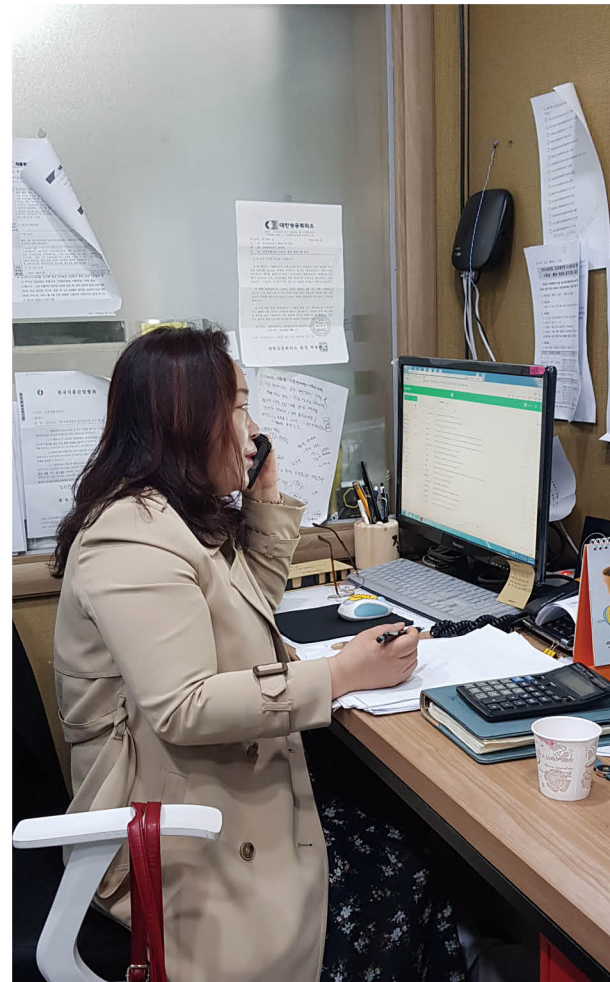
‘시간이 없다는 사소한 핑계는 갖지 않고 생활한다.’는 장대표는 시간 관리에 있어서도 타인의 작은 시간까지 소중하게 배려하는 섬세함까지도 갖추고 있는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경영자 중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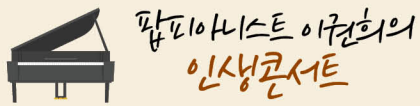
고군산 개야도 섬, 바로 우리 지역에서 직접 생산되는 상품인 만큼 많은 관심과 애정이 이어지길 바라며, 장대표의 사업에 대한 열정과 항상 건강함이 함께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또한 대표라는 무게감 있는 호칭보다 김 농사꾼이라 불리고 싶다는 장대표의 순수함에서 차별화 된 원초를 생육과 최고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믿음을 한 번 더 느끼게 된다.

일반 소비자가 간과할 수 있는 원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등급 표준화를 진행 중인 김에 대한 관한 정보를 알리기에 노력을 기울리 하지 않는 모습은 정성이 담긴 엄마의 맛과 함께 깊은 바다의 향을 함께 전해준다.

진포상회
전북 군산시 죽성로 51(신영동)
Tel: (063)443-5080 Fax: (063)443-5081





<편집자 주>

매거진군산은 '한동안 뜸했었지', '그대 모습은 장미' 등 히트곡을 남긴 록밴드 '사랑과평화'에서 키보디스트로 활동하였던 이권희 팝피아니스트와의 인연으로 그의 음악 인생을 담은 '팝피아니스트 이권희의 인생콘서트'를 연재하기로 했다. 이권희씨는 고양시 풍동의 음악작업실에서 작업 중이며, 6장의 독집음반을 낸 팝피아니스트이다. 그는 군산을 찾아와 인디밴드를 육성하려고 하였으며, 박양기 시민예술촌창과의 오랜 인연으로 군산의 뮤지션들과의 넓은 교분을 쌓아 왔다.

이. 아버지와의 풍물놀이(1)

마을 가운데에는 200여 년쯤 되는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늙은 당수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이 나무는 한눈에 봐도 호호 할아버지 나무라고 할 만큼 나무의 껍질이 다 벗겨져 있었고 나뭇가지도 그리 많지 않았고 봄이 되어도 새잎은 틈성틈성 밖에 돋지 않아서 철부지 어리던 우리는 죽은 나무처럼 여겼다.

앞에는 화강암으로 된 제단이 놓여있어 평소에는 제단 위에 주저앉아 소꿉놀이도 하고 풀잎 뭉치로 선을 그으면 녹색 줄이 생기므로 임시 장기판을 만들어 장기를 두는 형들도 있었다. 햇살이 좋은날은 화강암 돌이 햇빛에 달구어져 온돌방처럼 따뜻해져 누우면 따뜻해서 금방 낮잠이 들곤 했다. 겨울이면 그 자리를 서로 앉으려고 자리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고목나무 가지가 아래까지 뻗어 있어 제단을 밟고 당수 나무 위를 쉽게 올라갈 수 있어서 나무에 올라타서 많이 놀았다.

나무 아래는 광장처럼 넓은 공간도 있어서 정말 놀기에는 딱인 장소였지만 마을의 어르신들에게는 신성하면서 중요한 공간이었다. 논외의 장이 되기도

했고 해마다 치러지는 마을 행사의 메인 무대이기도 했다.

당수 나무 아래서 치러지던 행사 중 나에게 가장 재미있고 즐거웠던 것은 풍물놀이였다. 동짓날, 설날, 정월대보름, 추석 등 고유 명절의 민속놀이 때는 항상 빠지지 않는 놀이이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사물놀이라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물놀이란 단어가 생기지 않았을 때라 풍물놀이라 했다.

풍물놀이패 행렬에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나와 같이 참여를 했다.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집마다 돌면서 집안의 나쁜 기운을 쫓고 좋은 운이 들어오길 기원하며 동시에 가족들의 건강을 빌었다. 풍물소리는 온 마을이 떠나갈 듯 울려 대었고 그 왁자한 즐거움이란... 지금 돌이켜 보면 풍물소리는 단순한 리듬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고 도는 진행인데 그때 내 귀에는 어찌나 재미있고 흥겹게 들리는지 뺨과리 패턴을 허벅지에 따라 치면서 풍물 리듬에 푹 빠져서 온종일 따라다니다 저녁엔 요즘 말로 떡실신이 되어 잠이 들곤 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늘 풍물놀이의 메인 멤버이셨다. 아

버지께서는 얼마나 흥이 많고 리듬감이 좋았는지 마을에서는 이미 재미지게 놀 줄 아시고 여흥을 즐길 줄 아는 멋진 분으로 인정되어 있었다. 풍물놀이로 종일 한바탕하고 들어오시면 이튿날 어깨가 아파서 일을 잘 못하실 정도였고. 가족 친지들의 연중행사에서도 장단을 맞춰가며 끊임없이 노래 부르시는 유명한 분이셨다.

아마 나의 끼도 그 원천을 찾았다면 아버지로부터 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풍물놀이 행사를 앞두고 있는 어느날 그날도 아버지께서 잠시 연습을 하시다 어딘가를 가신 사이에 나는 바닥에 놓인 뺨과리를 보았고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뺨과리를 들고 어른들이 치던 리듬을 혼자서 쳐보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몰입이 되어 치고 있었는지 어느새 돌아온 아버지께서 “너... 한번같이 해볼래?...”라고 제의하셨다.

나는 부끄럼 없이 너무나 기쁜 마음에 “예!”하고 대답을 했고. 풍물패 주 멤버분들에게 뭐라 말씀을 하셨던지 나를 준비하게 하신 뒤 내가 상쇠 역할이라 먼저 치고 시작하라 하셨다. 난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치고 들어갔고 나머지 분들이 합세를 해으며 신기하게도 악기

소리 전체가 어우러지면서 리듬이 착착 들어맞는 걸 느끼며 머리카락이 쭉긋하게 서고 몸 전체가 달아 오름을 느꼈다. 그 순간이 나의 최초 앙상블 경험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뿌듯하고 즐겁다.

통상 운동신경은 달리기로 평가하고 음악의 감각은 리듬감으로 확인을 한다. 그래서 그날 이후론 난 타악기에 흠뻑 빠져서 틈만 나면 두들기며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를 따라 장날 시내에 갈 일이 생기게 되었다. 약장수가 약을 팔러 온 모양인지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고 있었고 멀리서부터 시끌 시끌했다. 장사치가 원숭이를 데리고 생전 처음 보는 여러 개의 북으로 만든 악기를 쳐가면서 쇼를 하고 있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풍물놀이에서 들던 소리와는 전혀 다른 악기... 원숭이의 재롱 같은 건 보이지도 않았고 장사치의 손과 북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시간은 자꾸 가고 엄마는 장을 봐야 해서 나를 재촉했지만 내 발은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엄마는 내게 절대 다른 데 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스무 번쯤 받은 후 예야 장을 보러 가셨다.

어머니는 아직도 그 얘기를 가끔 하곤

하신다. 몇 시간을 장을 보고 오셨는데 그때까지도 있던 그 자리, 북 옆에서 조금도 안 움직이고 눈도 못 떴고 있더라고... 물론 어머니는 주변에 아는 분께 나를 부탁하고 가셨었고 그 사람도 저런 애가 다 있다고 혀를 내두르셨다고 한다. 나중에야 그것이 드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장에서 돌아오고 며칠을 드림이 생각나서 친구들과 놀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결국.. 그것을 재현해서 만들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나무 각목을 뼈대로 세운 뒤 합판을 둥글게 잘라 드림 형태를 만들고 마지막에 심벌이 문제였다. 그래서 주위의 냄비 뚜껑을 주워다 걸어서 의자에 걸터 앉으니 제법 드림의 형상이 나왔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께서 불쑥 나타나셨다. 난 순간 눈앞이 캄캄했다.. 아무리 풍물을 좋아하시는 아버지라도 드림은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걸 만든다고 야단맞을 각오로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예상외로 아버지께서는 뭐 하는지 물으시더니 꾸지람은커녕.. 기특했는지 아님 당신께서도 좋아하는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림으로 그려 보라시며 못질도 제대로 해주셨다.

이튿날 일어나 보니 찌그러진 냄비 뚜껑은 없어지고 멀쩡한 큰 솥뚜껑이 걸려 있었다. 난 엄청 기분이 좋았고 아버지와 나는 같은 취향인 걸 새삼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돌아켜보면 지금까지 뮤지션으로 아티스트로 긴 세월 해 올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든든한 정신적 후원이라 생각이 든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는지 몰라도 아버지의 그늘에 있을 땐 단 한 번도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게 해주셨던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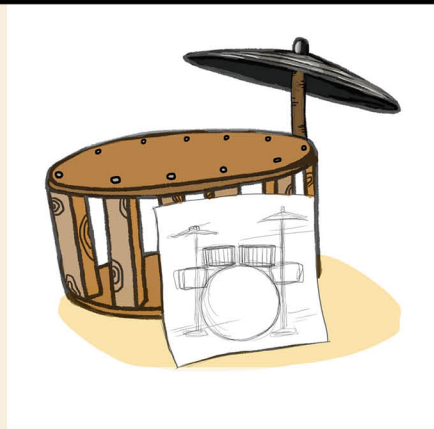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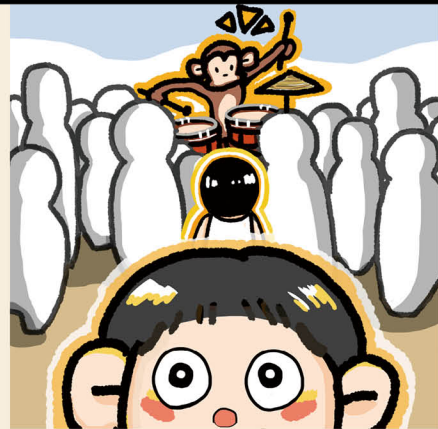
나의 아버지께서는 올해 7월 31일 92세의 일기로 하늘나라로 가셨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노래를 즐겨 부르셨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현란하게 북을 치시고 노래를 부르며 친구들과 풍류를 즐기시고 계시진 않은지...

아버지
그림습니다..



팝피아니스트 이권희
삽화_이영은(zzari)





그 곳에 가면 진짜 DJ와 진짜 음악이 있다

<프로로그>

지곡동 549-2번지에 가면 카페 '음악이야기'가 있다. 그곳에는 '비틀즈'가 있고 '멜로디 가르도'가 있으며 '질은'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인디 가수도 있다. 여러 단골들도 있으며, 언제나 혼자 와서 독한 칵테일을 마시는 '고독맨', 신청곡이 나올 때 평평 우는 '슬픈 남자'도 있다. 술값이 비싸다 하면서도 발길을 끊지 못하는 '투덜이 아저씨'도 있고 그룹 퀸의 음악을 좋아해서 우리끼리 '퀸'으로 통하는 손님도 있다.

이 연재는 카페 주인과 손님들의 이야기이다.



슬픈 카페 (The Sad Cafe)

오후가 되어서야 잠에서 깬 나는 귀향의 계획을 보류했다. 그 카페에 다시 가고 싶어하였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카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면 굳이 그곳이 아니어도 될 일이었다. 후배는 몹시 못마땅한 표정으로 계속 투덜거렸다.

카페는 전날과 다름없어 보였는데 의외의 변화가 하나 있었다. 우리를 맞이하는 주인의 태도였다.

"어제 오셨던 분들... 맞죠?"

주문을 받으며 우리에게 알은체를 했다. 후배는 고개를 가웃 거렸고 나는 웃었다. 주문한 술을 가져온 주인에게 협석을 제안했고 그는 승낙했다.

"카페는 하실만한가요?"

"아뇨. 쉽지 않아요."

초저녁부터 시작된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자연히 카페를 차리고 싶은 내 생각도 말하게 되었다. 술기운 탓인지 카

페 주인은 많은 얘기를 들려줬다.

"우리 부부는 동갑내기였어요. 공통점이 많았어요. 특히 팝송 좋아하는 건 더 그랬죠. 맛있는 거 사 먹고 옷 사 입는 것보다 레코드를 사는 게 먼저였어요. LP 산 날에는 그거 들으면서 음악 얘기하느라 밤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때쯤 되니까 나이 60이 되면 음악 카페를 차리자고 목표를 세웠고 실제로 딱 60 되던 해에 이 카페를 차렸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그랬어요. 좋아하는 음악 매일 들으면서 일하니까 좋겠다면서 부러워했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듯 카페 경영은 만만치 않았다. 처음부터 뼈저터거렸다. 미처 예상치 못한 일들에 부딪쳐야 했다. 오래 모아 놓은 돈을 거의 쏟아 붓고 나서야 개업을 할 수 있었다. 장사를 시작했으니 수입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위안을 삼았다. 그 기대가 실망과 두려움으로 변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손님이 너무 없었다. 이따금씩 찾아주는 지인들과 지나가다 들른 뜨내기손님으로는 카페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카페 앞 거리에서 쿠폰과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을 비롯한 여러 광고 방법을 동원했지만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개업 일 년쯤 되었을 때 두 사람은 몹시 지쳐 있었다. 카페를 계속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했다. 대출을 받아 안간힘을 쓰며 버티는 날이 이어졌다.

다행히 일 년 반쯤 되면서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 한 달에 몇 번씩 찾는 단골도 제법 생겼고 입소문을 통해 찾는 손님들도 하나 둘 늘어났다. 그동안의 적자를 조금씩 만회하기 시작했다. 카페를 개업한 이래로 가장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한계였다. 그저 먹고 살 정도만 벌면 만족할 두 사람이었지만 그마저 녹록지 않았다. 2년 동안 열심히 홍보하면 그때부터는 손님이 손님을 데리고 와 저절로 굴러가는 구조가 된다던 어느 마케터의 책 내용과 현실은 달랐다.

두 사람은 지쳤다. 단골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었다. 손님수가 줄어들면서 두 사람은 의기소침했고 어쩌다 온 손님들도 썰렁한 분위기 때문에 도로 나가기 일쑤였다. 설상가상으로 평소 몸이 허약하던 아내는 건강이 나빠졌고 우울증이 왔다. 직원을 채용할 여유가 없어 카페 주인 혼자 운영하게 되었다.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혼자 하다 보니 서비스의 질과 양은 떨어지고 피로에 지친 주인의 모습은 카페 분위기를 더 가라앉게 만들었다. 막막한 미래가 두렵지만 그보다는 카페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게 급선무가 되어버렸다.

"카페를 내놓은 지 꽤 됐는데 그마저도 뜻대로 안 되네요."

독한 칵테일을 마시며 말하는 카페 주인의 얼굴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스피커에서는 카페의 처지를 묘사라도 하듯 〈The Sad Cafe〉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글스(Eagles) 밴드가 아닌 제이 디 사우더(J. D. Souther)

의 목소리가 더 감성적으로 느껴졌다. 노랫말처럼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침묵했다. 무어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침묵을 깨뜨린 것은 카페 주인이었다.

"카페, 왜 하시려고요?"

기습과도 같은 질문에 당혹해하는데 그가 또 물었다.

"음악 좋아하시죠?"

"아, 네... 뭐, 조금..."

"근데, 좋아하는 것과 경영은 본질적으로 다르더군요.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커피 좋아하고 커피에 대해 잘 안다는 이유로 카페 차렸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죠.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고 커피 맛이 좋고 서비스를 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가 왜 카페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제게는 없었어요. 분명한 모토가 없는 사업은 즐겁게 일하지도 못하고 성공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카페를 그만둘 때 알게 됐네요. 허허"

자조와 회한에 헛웃음까지 섞인 말이었다. 그날의 대화중에 가장 선명한 기억으로 남은 것은 그 마지막 말이었다. 그날 밤에도 나는 잠을 쉬이 이루지 못했다. 카페를 왜 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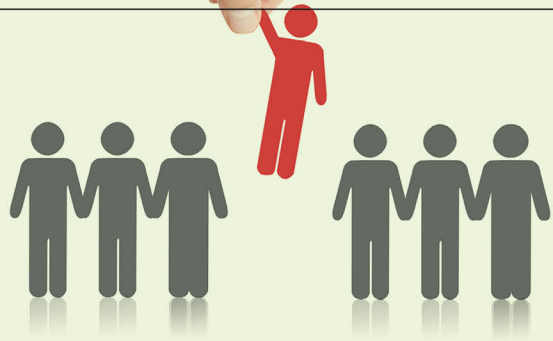
당신은 여전히 카페 차릴 꿈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 내가 그랬던 것처럼. 커피를 사랑하고 커피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그래서 독특한 인테리어와 획기적인 마케팅으로 커피 마니아들을 단골로 만들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 당신에게 묻고 싶다.

"카페, 왜 하시려고요?"



카페 '음악이야기' 대표DJ 이현웅
군산시 신지길 66(지곡동)
010-4104-7159

갈수록 줄어드는 군산인구. 뾰족한 대책은 없나?



군산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군산은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조업중단에 이어 지난해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로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인구 유출의 영향은 군산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어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뾰족한 대책은 없는 걸까?

인구감소 원인의 가장 큰 요인은 먹고사는 문제, 즉 일자리와 직결되어 있다. 출생, 사망으로 인한 자연적 인구 증가 현상은 전국적으로 매우 줄어들고 있으며,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게 되면서 인구감소에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4월말 기준 군산시의 인구는 27만1781명이다. 올해에만도 벌써 864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2천500여명 이상이 감소한데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다. 기대했던 30만 명은 고사하고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께 27만 명 선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군산 인구는 지난 2008년 26만3845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2009년 26만6922명, 2010년 27만2601명, 2011년 27만5659명, 2012년 27만8319명 등 매년 3천여 명 정도가 늘어났다.

당시 새만금 개발 호재와 현대중공업·

두산 인프라코어 등 대기업 유치 등이 맞물려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했으나 2013년 27만8562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군산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정책계를 신설하고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비롯해 군산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인구증가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산시의 인구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유치는 물론 주력산업 재생 및 첨단·관광산업 등에서의 일자리 창출, 청년정착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 사회적 분위기 조성, 출산 장려 및 공공보육시스템 강화, 여성 친화 환경 조성, 청년 결혼문제, 맞벌이 가정 육아지원, 귀농·귀촌지원 등과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자 건강관리 시스템, 고령자 커뮤니티(공동체) 조성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 주거환경 개선, 1~2인 가구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임대주택 공급 등 취약계층 주택지원 확대 등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 등

각 분야에 걸쳐 인구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범국가적 차원의 인구증가 대책마련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사회 환경적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분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역 균형발전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한 도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더 잘 사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인구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확보, 시정운영의 주요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군산이 서해안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인구증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물론 행정과 정치권,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군산시의원
수시탐포럼 사무처장
이복

소란한 세상

어디를 보아도 참 소란한 세상이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온통 소란한 세상 속에서 소음과 싸우면서 나날을 살아간다.

정치판의 소란함에 더해진 각계각층의 소란함 때문에 고요함은 오래 전에 사라져 버렸다.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급적이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삼가려고 애를 쓰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성탄 시즌은 아니지만 예수 성탄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요셉은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려고 관습에 따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여관을 잡을 수가 없었다.

여관은 가진 자들과 관력자들이 이미 다 차지한 상태였고 전국에서 모인 여행객들로 인하여 세상은 소란하기 그지없었다. 가난하고 힘없는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의 마구간에 피곤한 몸을 누였는데 마리아는 산기를 느끼고 곧 마구간에서 예수를 출산하고 갓난아이를 말구유에 누였다.

기독교가 온갖 욕을 다 먹는다.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지 않는다. 설교란 예수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어야하고 힘들고 서럽고 외롭고 고통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전하고 아픈 이들을 만져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목사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 설교라는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케케묵어 쓰레기통에 던져져 기억도 없는 공산주의자를 들먹이며 특정인을 비난하고 또 다른 특정인을 추켜세우는 소란함만이 강단에서 울려 퍼진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소란하다.

초대 교회는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하며 공동체를 이루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계급도 다툼도 없었다. 그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힘이었던 것이고 바른 목회며 설교였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가진 자는 대접받고 소외된 자는 여전히 소외를 당한다. 교회 안에서 느끼는 위화감이 더 크다. 교회는 점점 부자들과 기득권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가진 자들 때문에 들어갈 방이 없었던 것처럼 정작 가진 자들로 가득찬 교회에는 예수가 들어갈 방이 없게 된 것이다.

세상의 소란함을 피하여 조용히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교회는 문을 열지 않는다. 굳게 잠긴 출입문과 번호키, 눈을 부릅뜨고 오고가는 이를 살피는 감시카메라...

소란한 세상보다 더 소란한 교회, 그곳에 예수는 없다.



수필가 / 청목하우징 대표 /
군산사료총판 진우상회
공동대표 / 시민·사회·
환경 운동가 남대진

치솔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치과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확한 칫솔질입니다.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게다가 통증을 참아가면서 충치와 치주염을 열심히 치료받았다 하여도, 칫솔질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충치나 치주염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마다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는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칫솔질에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는 더욱 차이가 큼니다. 칫솔질의 중요성을 그냥 건성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칫솔질, 정확한 칫솔질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입안에 있는 모든 치아의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면 됩니다. 참~~~~~ 쉽죠? 전동칫솔, 음파칫솔 등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손으로 꼼꼼하게 닦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니까요. 적절한 칫솔을 선택하고 - 칫솔에 대한 설명은 지난달에 했었지요 - 열심히 닦으세요. 칫솔질을 하는 방법에는 회전법, 횡마법, 묘원법, 스틸만 법 등 등이 있지만 방법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저 열심히 닦으세요. 단 하나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면 “시간”입니다. 제아무리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1분의 시간 동안 깨끗하게 칫솔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3분 이상의 칫솔질을 권장하지만, 저는 4분 동안 칫솔질하는 것을 권합니다. 4분의 시간을 엄수하기 위해 반드시 시계를 보면서 칫솔질을 계속해야 합니다. 시계를 보지 않고 자기 머리로 ‘이정도면 4분 이상 지났겠지.’ 하고 시간을 확인하면 기껏 1-2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칫솔질하는 동안에 시계를 꼭 보시면서 쉽 없이 칫솔질을 해주세요. 이렇게도 닦고, 저렇게도 닦고, 이 쪽 면, 저 쪽 면, 골고루 골고루... 잔뜩 힘을 주어 칫솔질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칫솔의 수명만 단축할 뿐입니다. 부드럽게, 골고루, 쉬지 않고 칫솔질을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칫솔질을 오래한다고 해서 이가 마모되지는 않으니까 4분 이상 하셔도 됩니다. 그럼



더 좋겠지요^^

칫솔질은 이를 닦는 목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잇몸을 문질러주어 혈액순환을 촉진해, 잇몸이 세균 공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어렵지요? 쉽게 말해서 칫솔질 하는 동안에, 치약이 묻어있는 바로 그 칫솔로 잇몸을 마사지해주면 단단하고 튼튼한 잇몸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동글동글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를 하셔도 되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부드럽게, 오래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28개 치아를 깨끗이 닦으면서 잇몸 마사지까지 꼼꼼히 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아의 구조는 세균 공격에 어떻게 무너지는가, 치주질환은 어떻게 발생하여 진행되는 가, 치약의 성분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등등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복잡한 거는 치과 의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칫솔질을 열심히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딱 2가지만 생각하면서 칫솔질을 해주세요. 시계를 보면서 4분 이상, 치아를 닦기뿐만 아니라 잇몸 마사지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좋은사람 좋은치과 이형재 원장
군산시 수송동 852-2 청담빌딩 3F
(063)466-2875
bolteck2@hanmail.net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상상만해도!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Get a Smile.
겟 어 스마일 -
좋은사람 좋은치과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서비스.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진료시간
● 평일 :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 오전 9:20 - 오후 1:30
● 화요일 야간진료 : 오후 8:00 까지

add.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_2 청담빌딩 3F
tel.063_466_2875 fax.063_465_2922

개인의 세부담이 6년간 78% 급증한 원인은 무엇일까?

최근 6년간 개인의 세(稅) 부담 증가율이 기업의 세 부담 증가율보다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개인과 법인 세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3~2018년 6년간 개인이 내는 소득세 세수는 78.3% 증가했고, 기업이 내는 법인세 세수는 61.8% 늘어났습니다. 소득세 세수 실적은 2013년 48조3833억원에서 2014년 54조1018억원, 2015년 62조4397억원, 2016년 70조1193억원, 2017년 76조8345억원, 2018년 86조2887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법인세 세수 실적은 2013년 43조8548억원에서 2014년 42조6503억원, 2015년 45조295억원, 2016년 52조1154억원, 2017년 59조1766억원, 2018년 70조9374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결과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 격차는 2013년 약 4조5000억원에서 2018년 약 15조4000억원으로 벌어졌습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25.4%와 23.1%였으나, 2018년에는 각각 30.4%와 25.0%로 격차가 커졌습니다. 그럼 이처럼 법인과 개인의 세수부담율의 격차가 증가하고, 개인의 세금부담이 대폭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법인세율이 개인소득세율보다 현저히 낮아서 발생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개인의 경우 최고세율이 42%인데 반하여 법인의 경우 대부분 10~20%세율을 적용받고 있고, 과표 3천억원이상의 대기업만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데 개인과 법인의 세부담형평성과 조세정의의 측면에서 그 과표구간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개인들의 사업이 지난 5년간 호황이어서 세수가 증가하였다기 보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증가로 개인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줄여 신고할수 없게된 상황과 매출이 높은 개인사업자에게 성실신고확인제도라는 새로운 신고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가공경비를 통한 탈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월명동 19-12
(063)466-5566, 1766

세무상담 및 고문 | 가장 및 신고대리 | 법인 및 개인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업무 | 조세 불복 청구대리 | 벤처기업 확인 업무

돈이란 버는 것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세무사사무소**와 함께 하셔야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무문제는
나일환세무사사무소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는 양질의 **세금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조세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일환세무사 약력
군산제일고 / 전북대 행정학과 / 군산대학교 회계학과
국세청 79급 공채(15년 근무) / 전주세무서 부가치세과 / 익산세무서 소득세과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군산세무서 재산세과(양도상속증여) / 공인중개사(14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지회 전문세무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세무분야 전문가
군산세무서 공평과세 위원회 위원

나일환세무사사무소

군산시 동국사길 5 (월명동 19-12)
tel. (063)466-5566, 1766 fax. (063)466-5605

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 동향



Q. 안녕하세요 소릉동에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정현정이라 합니다. 본인 상가는 유흥업소와 숙박업소가 밀집한 곳에 위치해 있고 건물2층을 마사지 업소로 임대를 주고 지내던 중 뉴스를 보니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은 지라 뉴스 내용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 이리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가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목적물에 불법퇴폐 마사지업소가 아니며 건전한 타이 마사지 업소라 하여 임대차함.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이 발생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는 특약을 명시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A. 실제 이런 유사한 판례가 있어 정현 정씨에 도움이 될듯하여 인용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
- 성매매 알선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실제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 2400 판결)

임대인 00씨는 자신이 임대해 준 점포가 성매매 업소로 적발된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앞으로 불법영업을 하지 않고, 다시 문제가 되면 모든 법적 책임을 임차인이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였고 이후 2차례나 더 경찰 단속에 걸리게 됨에 따라 검찰은 임대인 00씨를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00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하였습니다. 자신은 임차인에게 분명히 불법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통보하였고, 심지어 불법 영업을 또 할 시에는 모든 법적 책임을 임차인이 지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으므로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1심과 2심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유는, 설사 임대인 00씨가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외에 00씨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해지하지도 않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성매매 업소 철거 확인이나 건물인도 요청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임차인으로부터 계속적인 임대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임대인 00씨)이 임대차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킨 것이 아니어서 성매매 업소에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성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은 임대인에게도 매우 강력한 처벌(징역형이나 벌금형은 물론이고, 건물을 임대하고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몰수하거나 추징금을 부과)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먼저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명 건전한 마사지업소라 하고 계약했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성매매가 이루어 질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임차인이 상가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 654조에 따른 제610조 제1항의 준용)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업소 내 인테리어 및 기자재 철거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며 그러한 행위가 발견될 시 즉시 계약해지를 적용할 것이며 이로 인한 임대인의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보니 쉬운 일은 단 하나도 없고 거저 얻어지는 것도 세상에는 단 하나도 없더라. 열매에 대한 달콤함만 향유치 말고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석사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부동산자산관리사/
자산운용전문인력(부동산)
최인성 대표
군산시 조촌동896 (시청로10)
(063)452-0025 / 010-7758-4989

재량권 0으로 수축

군산지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고용과 산업의 위기지역으로 지정 받은지 1년이 지났다. 그 어려운 여건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지난달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재지정을 받는 어려운 형국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다행스럽게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한 MS그룹 컨소시엄이 전기자동차 공장 시험 가동에 나선다는 소식이 다. 컨소시엄은 공장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7월경 공장을 시험 가동하고, 이후 인력 채용을 채용하고 2021년부터 연 5만대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기차 양산 체제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은 약 2000억원을 투자해 900여명을 고용하고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방식으로 5년 내 자체 개발 모델도 선보일 계획이다. 오는 2025년에는 생산량을 연 25만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한다.(언론보도) 그리고 지난 30일 군산시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4개의 전기차 관련 기업이 전기차 집적화를 통한 새만금산업단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전기차 관련 기업인 에디슨모터스, (주)대창모터스, (주)코스텍, (주)엠피에스코리아 등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에디슨모터스 등 전기차 관련 4개 기업은 새만금산업단지 378,000㎡ 부지에 총 970억원을 투자해 330여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언론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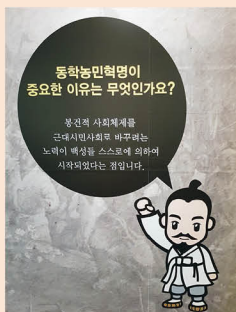
한편 1993년 설립한 ‘동우팜투데이블’은 닭고기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4만평의 규모로 3,000여억원을 투자하여 고용창출 1,500여명에 이르는 공장을 계획하였으나,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입주 제한을 강화하는 제제로 입주가 불허 되고 있다. 바로 입주제한 업종인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

종, 시멘트 제조업종 등의 입주를 제한 하는 고시에서,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하여 입주를 제한 함’(2018.9.28.) 이라는 문구를 통해 오히려 그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행정의 원칙 중에 재량행위(裁量行爲, Ermessensakte)라는 것이 있다. 행정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청에서 일정한 선택이나 판단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 즉 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 요건을 실현함에 복수(複數) 행위 간의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그 재량행위 이론 중에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라는 내용이 있다. 즉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 중요한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 결정재량은 축소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판례 98.05.26, 98다11635 - 「변심한 애인을 상해한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범죄신고와 함께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관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적 내용이니 이쯤하고, 군산 지역 경제상황에서 바로 관할 행정청의 재량이 0으로 수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성장과 기술력 향상 그리고 전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은 수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기업들을 로봇이 대체하고 인력은 점차 줄이고 기술력으로 인력을 감당하는 기업의 형태로 변화하는 시기여서, 군산지역의 대기업의 이탈로 인한 고용불안과 경제파탄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동우팜투데이블’의 인력 중심의 제조업의 유치는 시민들의 생명권과 직업선택의 영역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어쩌면 관할 행정청의 판단이 일부 타당 할지 몰라도 침몰하는 지역경제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본다면 재량은 별로 남아있지 않을 듯 하다.

글 | 온승조(칼럼니스트)
gsforum@hanmail.net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의 동학농민혁명을 밝혀내다



군산시민예술촌 동아리클럽 - 제14회 콩당보리축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군산시민문화제 참여

군산시민예술촌(박양기 총장) 소속의 동아리 클럽 '오하나 우쿨라이어', '달하', '청춘'이 제14회 콩당보리축제와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군산시민문화제에 참여하여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예술촌에서 활동하는 '오하나 우쿨라이어'는 나이 제한이 없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동아리로 매주 토요일에 모여 연습을 진행하며 '달하'와 '청춘'은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댄스 동아리로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틈틈이 모여 연습을 해왔다.

이번 축제와 추도식에 참여한 동아리는 군산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와 행사에서 시민들에게 설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성취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시민예술촌 동아리클럽으로 더욱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



문화공간 '뒤뜰'에 '달맞이 나무' 작품 완공

군산시민예술촌은 작년 문화공간 '뒤뜰' 경관 조성을 한 데 이어 올해 Upstage 대표 이정환 작가의 '달맞이 나무' 작품을 완공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이정환 작가의 '달맞이 나무'는 김종운·윤이슬·장한성이 참여 작가로 함께 하였으며 기존 '뒤뜰'공간에 나뭇잎을 형상화한 그늘막, 위에는 달이 떠있는 모습으로 제작되어 야간에는 은은한 조명의 달을 만날 수 있는 친화적인 예술 조형작품이다.

예술촌 뒤편 주차장에 자리하고 있는 문화공간 '뒤뜰'은 예술촌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과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용을 원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작은 야외무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산시민예술촌
군산시 중정길 17 (구 우일극장)
063-443-7725
www.gsartzone.kr

인문학 창고 정담(情談)52

요즘 군산의 “인문학 창고 정담(情談)52”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와 현지인들에게 작은 신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정]답게 나누는 [담]소의 시간”이란 화두(話頭)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총 52주를 목표로 시작되었다.

2018년 12월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LINK+사업단, 인문산학협력센터)에서는 지역문화협동조합 G-Local i와 함께 옛 군산세관의 세관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인문학창고 정담을 개관하였고, 군산시장,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군산세관청장, 군산시국회의원, 군산시시의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정담”의 시작을 알렸다.

군산세관창고는 개항(1908년) 후 110년이란 시간동안 군산의 근대화시대를 함께한 세관창고이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문화재청을 설득해야 하는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군산시와 군산세관은 세관창고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역문화협동조합과 국립군산대학교가 함께 노력하여 “인문학 창고 정담”으로 다시 군산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준 뜻깊은 사례인 것이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방치되어 있던 곳을 다시 시민들의 지식창고로 환류(還流)된 공간의 문화콘텐츠인 것이다. 이런 계기로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담52”는 매주 목요일마다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밤 7시에 열린다. 공연예술을 비롯한 영화, 미술, 철학, 인문, 사회 그리고 기초과학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가 및 전문가를 강연자로 초청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매달 첫 주 목요일에 열리는 “작은 음악회”는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의 공연을 눈앞에서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선사한다. 2018년 12월 첫 강연은 30~40명 정중으로 시작하였지만, 입소문을 타고 현재 80~90명에 이른 다. 결국 7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군산시민들의 지식문화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풍부하게 넓혀가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클래식 공연의 열광적인 분위기는 “정담52”의 만족도를 알 수 있다. 그만큼 공연에 대한 갈증이 컸다는 반증일 것이다. 예술의 전당과 같은 격식 있고 편안한 좌석은 아니지만, 강연자의 눈을 마주보고 연주자와 같이 호흡하는 공간의 힘은 그 어떤 큰 극장보다 진한 감동을 선사 할 지도 모른다.

각 지자체에는 대규모 극장들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인체의 모습으로 빗대어 본다면 대규모 극장들은 대동맥의 역할 일 것이고, 정담52와 같은 작은 공간의 활동은 신피츨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상호보완적 문화예술 공간이 활성화 되어야 군산도시의 시민들에게 인문사회예술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선사 할 수 있다. 어쩌면 “정담 52”는 인문사회 문화예술 콘텐츠의 발전 모형을 제안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담 52”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커지자 “정담”을 모방해서 다양한 작은 공연과 강연이 군산 곳곳에서 열린다는 것도 무척 고무적(鼓舞的)이다. 일 예로 지역문화협동조합 G-Local i는 정담의 매주 목요일 프로그램과 별도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공연을 만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결국 지역 예술가들의 가치를 지역 시민들에게 알리는 무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인문학 창고 정담52”는 주간의 행사가 아닌 “인문학 창고 정담365” 즉, 하루가 쌓여 일 년을 만들 듯, 인문사회 문화예술 관광콘텐츠가 살아 있는 살아 있는 “정담”이 되기를 응원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런 콘텐츠를 운영하기 위해선 많은 지원금이 필요하다. 국립군산대학교는 “정담52”에 콘텐츠 지원을 위해 한해 6천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해 놓았다. 1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닐 것이다.

요즘 “소극장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정식 공연장이 아니라도 이런 공간의 콘텐츠가 지역사회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심사 기준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글을 마무리해 본다.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전북작곡가협회장
최명훈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매거진군산

광고를 고민하신다면!

발행부수 5,000부,

군산 전 지역 무료배포, 1,500부 발송!

높은 회독률과

지역 독점 기사의 집중도까지 따져보신다면

매거진군산의 광고효과는 탁월합니다.

이제

광고마케팅은 매거진군산에 맡기시고

당신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매거진군산

a. 54027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2층

t. 063-445-1856 f. 063-911-1856 wh. icm23 (icm23)

지역사회 변화의 한 발자국

2019년 5월18일 토요일,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50여명의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이번 해부터 새롭게 시도하는 달그락 프로젝트 “우리동네 변화한발짝”은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날 청소년과 자원지도자들은 함께 달그락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발대식을 열었다.

발대식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공유하기 위해 핵심 주제인 참여, 우리동네, 변화를 모니터 화면에 띄웠다. 청소년들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채워보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는 어려움, 열심히, 함께, 좋은 것, 스스로의 도전, 지루함 등으로 생각했고 그 이유를 서로 알려주었다. 다음은 ‘우리 동네’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어떤 청소년은 우리 동네를 조용한 곳으로 생각하고, 어떤 이는 별거 없다고 하고, 역사의 이름, 나의 일부분, 탈출, 내 구역 등 다양한 관점과 생각,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키워드는 ‘변화’. 청소년들은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성장 계기, 어려움, 두려움, 환경에 맞춤, 용기, 차차 편해지는 것. 청소년들의 생각은 다양했고, 프로젝트를 마친 뒤에는 똑같은 질문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해진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은 참여에 대한 관점과 방향을 알기 위해 정건희 소장님의 강의를 들었다.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한 순간이 존재하고 그 한 순간, 한 순간마다의 선택과 참여가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이 된다고 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순간을 잘 참여하여 변화하는 자기 자신과 지역사회를 만나길 소망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은 집중하고 있었다. 그 후로도 지도자 선생님과 청소년들은 같이 소통하며 팀마다 프로젝트의 활동 목적과 목표, 활동 계획 등을 세웠다.

달그락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과 자원지도자 선생님들은 앞으로 10회기의 활동을 하게 된다. 진로가이드북 제작, 페미니즘, 길고양이, 일회용품 제로, 청소년다큐 제작, 공익광고 제작, 미세먼지 해결, 하천 오염 해결, 세계시민성 함양으로 9개의 프로젝트가 지역사회를 무대로 펼쳐질 예정이다. 청소년들의 참여로 지역사회가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되길 기대한다.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 www.facebook.com/youthautonomy/
문의 : 063-465-8871, jbyar@daum.net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새로운 시민의 대변자
새군산신문
NEW GUNSAN WEEKLY

독자들에게 드리는 안내의 말씀

‘매거진군산’이 2019년 7월호(지령100호)부터
유료화 함에 따라 구독 요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시민들의 소소한 이야기와 바른 소리를 내려면 독자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1. 매거진군산 + 새군산신문 = 1개월 구독료 10,000원(자동이체 및 연납기준 1년 10만원)
- 월간 ‘매거진군산’ : 매월 15일경 발행 / 주간 ‘새군산신문’ : 매주 목요일 발행
2. 매거진군산 혹은 새군산신문 중 한 가지만 구독할 경우 = 1개월 7,000원(자동이체 및 연납기준 1년 7만원)
3. 매거진군산 구독자들에게 별도의 배송료는 받지 않으며, 새군산신문 기존 유료 구독자는 변동 없습니다.

※ 구독료 입금계좌

매거진군산 : 농협 302-9676-8134-21 채명룡(매거진군산)

새군산신문 : 농협 301-0233-9489-21 / 전북은행 1013-01-2211518 새군산신문(주)

※ 문의

063) 445-4700 : 독자관리 담당

※ 년 구독료 입금시 군산특산품 [군산화투]를 드립니다.

■ 이웃과 함께 한 “어버이날 감사나눔”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명재)에서는 매년 이웃가정과 함께 어버이 날 홀로 또는 외로이 지내는 분들을 방문하여 가족이 되어 드리고 있으며, 회가 거듭할수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따뜻한 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올 해도 어기없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지역에 계시는 60세 이상 독거 및 부부장애인 가정에 이웃 가정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방문하여 감사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가정의 달 5월, 황금연휴의 시작이자 모든 직장인이 쉬는 토요일인 5월 4일! 혼자 또는 외로이 지내는 이웃의 일일 가족이 되고자 지역에 계신 이웃분들이 자녀와 함께, 친구와 함께 복지관에 찾아오셨다. 또한 5월 7일 화요일에는 지역에 있는 예품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이 곱고 작은 손으로 직접 만든 카네이션과 선물을 가지고 어르신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복지관에서 준비한 선물 뿐 아니라, 각자의 마음이 담긴 선물 하나씩을 준비해서 가니 나눔의 기쁨이 배가 된 것 같다는 한 이웃 가정의 말은 얼마나 따뜻한 나눔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었다.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는 모든 이웃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오는 4일 개관

25억 원 투입, 동국사 소장 유물 전시
개관 기념 6월 한달 간 무료 운영

동국사 인근에 위치한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금광동 165-8)’이 오는 4일 개관한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은 총 25억원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1868㎡에 3층 규모로 지어졌다. 1·2층은 주차장(48면)·3층은 유물전시관과 사무실, 소장고로 활용되며, 일제강점기 문화유산(도서·사진 등) 6,000여 점이 전시된다. 군산시는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운영조례를 제정해 역사관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공모에서 선정된 대한역사연구소가 3년간 이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시되는 유물은 대한역사연구소가 소유하는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천 여 점으로, 군산시와 관련된 유물 500점은 기증, 나머지는 기탁 형태로 전시된다. 시 관계자는 “군산의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인 동국사에 문화체험 거점시설과 주차장이 신축됨에 따라 관광객들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근대문화도

시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 관람료는 성인 1000원, 어린이는 500원이며, 6월 한 달간은 개관을 기념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 시민헌수 장미 특화거리 조성, 시민참여 이어져

시민이 함께하는 가로화단 장미꽃 식재

군산시가 수송동 상가중심지 가로화단에 시민헌수를 통한 장미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시에 따르면 장미특화거리는 수송사거리에서 월명로 사거리 양방향 2.2km(가로화단 86개소)로 시민헌수자로부터 총 1억 8,900만원 상당의 장미 1만 2,640본을 헌수받아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특화거리는 헌수신청을 하면 시가 화단을 제공하고 장미를 매입한 헌수자는 이름과 하고싶은 말을 담은 표찰을 달아 직접 식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미 헌수의향을 밝힌 헌수자와 함께 오는 28일 장미헌수목 식수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화단 62개소에 1억6,700만원 상당의 장미 1만128본이 식재돼 장미향으로 가득한 수송동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또 군산산림조합 외 19개 업체가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시민·기업체·단체로부터 참여 문의도 계속되고 있다. 심문태 산림복지과장은 “헌수운동에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헌수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철새조망대 사계절 체험프로그램 운영

군산시가 금강철새조망대 활성화 방안으로 ‘2019 사계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계절 체험 프로그램은 6월부터 12월까지 금강철새조망대 일원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관내 생태 및 환경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시는 금강권역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활용한 교육가치가 높은 성인생태체험 무료강좌를 비롯한 7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금강권 전시장 통합운영과 함께 사계절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하여 전시관 활성화에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여 방법은 금강철새조망대로 직접방문하거나 홈페이지(<http://gmbo.gunsan.go.kr>), 전화(☎454-5680)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금강철새조망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민 축제 - 수송동 아나바다 장터’ 성료

주민 큰 호응 속 개최

군산시 수송동행정복지센터와 수송동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한 『나눔과 희망의 애정촌 만들기 아나바다장터』가 지난 25일 수송체육공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680여명이 장터운영에 참가하고 7천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나눔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볼거리로 진행, 참가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나눔거리는 생활용품, 책, 의류 등으로 자원 재활용과 환경사랑을 실천하고 수익금 일부를 성금으로 자율 기탁하는 등 이웃을 나눔 문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기도. 먹을거리는 수송동 동장협의회와 부녀회, 발전협의회가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체험거리도 수송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서예를 통한 ‘우리 집 가훈 만들기’와 캘리그라피·프리저보드 플라워 엽서 만들기’를 운영하여 많은 시민과 학생이 참여했다. 이날 체험거리와 먹을거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전액 기부되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주민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볼거리로는 전라북도 문화나눔사업인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단의 매직 마술쇼, 비보이 공연, 비누방울 퍼포먼스, 풍선쇼 등의 풍성한 내용으로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아울러 자원순환과에서는 폐전전지가 미치는 환경오염의 유해성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가지고 온 폐전전지를 새 건전지로 교환해 줌으로써 아나바다장터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를 주관한 임성택 수송동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아나바다 장터는 단순한 장터가 아닌 나눔과 배려, 자원절약의 가치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값진 기회”라고 밝혔다. 김경배 수송동장도 “즐거움과 나눔의 가치가 공존하는 아나바다장터의 의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송동행정복지센터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중앙동 가온누리 봉사단 사랑의 밑반찬 전달

군산시 중앙동(동장 박용진)는 지난 24일 가온누리 봉사단을 결성해, 사각지대 및 저소득 결식 우려 가정 10세대를 대상으로 따뜻한 사랑의 밑반찬을 전달했다. 가온누리 봉사단은 순수 우리말로 중심이라는 ‘가온’과 세상이라는 ‘누리’가 합쳐진 단어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눔을 나누고자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및 자생단체 회원 26명이 모여 만든 봉사단이다. 발대식 이후 첫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둘째·넷째주 목요일 월 2회씩 밑반찬을 전달하고 대상자들의 안부와 일상생활의 고충을 들으며 이웃의 따뜻한 정을 나눌 계획이다. 박용진 중앙

동장과 봉사단원 일동은 “소외계층은 물론,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성향을 살펴 봉사활동을 추진해 따뜻한 중앙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회현면 ‘불법쓰레기 없는 쾌적한 마을 만들기’

군산시 회현면과 주민이 마을마다 골칫거리였던 불법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회현면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투기 근절 교육 및 홍보활동, 면 소재지 상가에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 실시하는 노력을 펼쳐왔다. 또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추가설치 등 행정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쓰레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것. 특히 지난 달 자생단체 회의 시, 마을 특색에 맞게 제작한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로 불법쓰레기 투기가 크게 줄어든 관내 월평2구 마을의 사례도 적극 홍보했다. 이에 금당마을, 척동마을을 비롯한 타 마을에서도 골칫거리였던 불법쓰레기를 이번 기회에 근절 시키겠다는 쓰레기 수거함 설치를 약속했다. 강희형 이장협의회장은 “월평2마을의 사례는 우리 회현면을 떠나 군산시에 전 체계적으로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불법쓰레기 근절을 다짐했다. 채궁석 회현면장은 “월평마을의 모범 사례로 삼아 회현면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약품 지원

경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7일 관내 저소득 아동에게 머릿니 샴푸 등 의약품을 지원하는 ‘저소득 아동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실시하는 경암동 특화사업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여름 무더위 위생 관리를 위해 기획됐다. 경암동 협의체 위원들은 머릿니 샴푸 50개를 관내 지역아동센터 2곳에 전달하고 어린이대상으로 청결 유지 및 예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정길호 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저소득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에서 펼쳐지는 축제 및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매일 새로운 행사를 찾아다니며 군산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행사 및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23일까지 입니다. jay0810@hanmail.net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와 공연 스포츠 경기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GUNSAN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연극 앙리 할아버지와 나 Tous String Quartet 제4회 정기연주회 군산 예술의전당 장애인식 개선 2019 희망콘서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19 예그리나 합창단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클래식에 미치다 2, 클래식을 외치다 아리올 솔리스트 & 앙상블 정기연주회 군산 예술의전당 대학생, 청소년 협연의 밤 김대욱 트럼펫 독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이승연 피아노 독주회 김정미 바이올린 독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크릿 주주 시즌2 군산 예술의전당 2019 장운정 LIVE 콘서트 - 전주 앙상블 APM 제7회 정기연주회 사랑과 음악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크릿 주주 시즌2 군산 예술의전당	제25회 음악과 협주곡의 밤 제4회 슈테른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긴머리공주 라퐁젤 군산 예술의전당	전주시립국악단 기획공연 목요국악예술무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군산여고 동문합창단 창단연주회 군산 예술의전당 뮤지컬 <영웅> 10주년 기념공연 - 전주 음악책을 뚫고 나온 영웅들 (어벤져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유망 청소년 음악회 군산 예술의전당 192회 토요일악회 오후 6시 50분 은파 물빛다리 광장 뮤지컬 <영웅> 10주년 기념공연 -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희망 음악회 군산 예술의전당 소리어스 10주년 정기연주회 제11회 선프레 뮤직 앙상블 정기연주회 내일은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 군산 예술의전당 제10회 이향운 대금독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립교향악단 제134회 정기연주회 군산 예술의전당 목요국악예술무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3회 장은수 탭댄스 아카데미 갈라쇼 군산 예술의전당 제18회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한국음악과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최명훈 작곡 발표회 군산 예술의전당 김범수 콘서트 'The Classic' - 전주 제11회 레가토색소폰 앙상블 정기연주회 트리레메 제1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룡 애니멀 쇼 군산 예술의전당	베스트 스트링 챔버 오케스트라 제16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19 문화가있는날 공연산책 '정오의 햇살' - 오보에 앙상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19 김창옥 토크 콘서트 '잘 살아보세!' 가족무용극 미스콩 소프라노 김혜정 독창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시네마 클래식 KOREA! 히엘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군산 예술의전당	
세계 가곡 연주회 센세이션 앙상블 제4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

군산예술의전당

공예, 일상을 엮다
2019-05-27 ~ 2019-06-06

군산새만금촬영대회 입상,입선 작품 전시
2019-06-07 ~ 2019-06-11

제1회 장수사진, 인생사진 전시회
2019-06-16 ~ 2019-06-23

김선희 무정념 작품전
2019-06-28 ~ 2019-07-05

한국미술협회 군산지부 정기전
2019-06-06 ~ 2019-06-13

군산 전국학생사진 공모전 입선,입상 작품 전시
2019-06-14 ~ 2019-06-18

공존, 여기에 머물다.
2019-06-17 ~ 2019-06-23

체험전시 브릭사이언스 파크 in 군산
2019-06-29 ~ 2019-06-30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05.21(화)~06.02(일) 제51회 전라북도미술대전
06.08(토)~06.13(목) 제30회 전라북도 서예대전 및 초대작가
06.20(목)~09.22(일) 이매진 존레노-음악보다 아름다운 사람



우리들의 작은 관심으로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스영아원
군산시 개정동 413
(063) 452-4075

일맥원
군산시 문화동 824-7
(063) 462-2385

구세군군산목양원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58-8
(063) 466-6088

구세군군산후생관
군산시 신흥동 58-10
(063) 445-9331

신광모자원
군산시 나운동 1242-9
(063) 462-7749

나눔의집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88-1
(063) 464-9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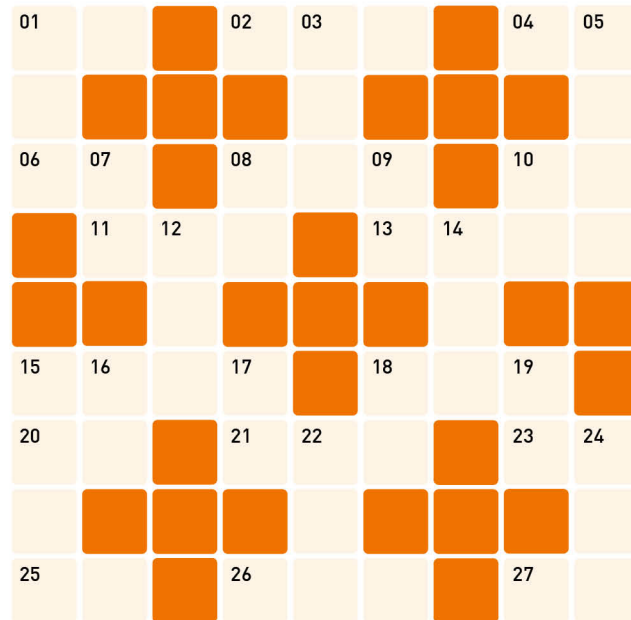
삼성애육원
군산시 신흥동 7
(063) 445-5947

신광모자자립원
군산시 나운동 845-9
(063) 461-8572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 3길 37번지
(063) 466-7981

날말 실력도 높고, 상품도 받고

즐거운 크로스워드 퍼즐 95



<제93호 퍼즐 정답>

한	정	판	도	마	미
서	식	수	직	이	문
동	정	너	산	면	
요	모	조	모	말	귀
리	조	부	모	를	
도	배	품	이	합	집
붓	비	판	주	자	
장	신	구	죽	순	고
수	니	은	경	암	동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Fax. (063)446-1856 E-mail. 282pyk@hanmail.net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과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은 4페이지 협찬업체 참조

▶ 가로 열쇠

- 01 죽은 사람이나 신령 따위가 꿈에 나타남.
- 02 새만금 일원에 조성 예정인 대규모 전력 생산단지는 자연에서의 이것을 이용한 발전(發電)시설이다.
- 04 일 년 중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절기. 올해는 6월 22일.
- 06 제안이나 부탁 따위를 단번에 거절하거나 물리침. 소문이나 의혹, 주장 따위를 단호히 부인하거나 더 이상 거론 하지 않음.
- 08 어린아이를 재우기 위해 부르는 노래.
- 10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
- 11 대나 싸리로 엮어 테가 있게 만든 그릇.
- 13 한없이 크고 넓은 바다.
- 15 한 번 그물을 쳐서 고기를 다 잡는다는 뜻으로, 어떤 무리를 한꺼번에 모조리 다 잡음을 이르는 말.
- 18 검정색은 블랙, 흰색은 ○○○.
- 20 인간의 언어를 적는 데 사용하는 시각적인 기호 체계.
- 21 국가정보원의 약칭.
- 23 15명을 한 팀으로, 타원형의 공을 상대방의 골에 찌거나 그것을 차서 크로스바를 넘겨 득점을 겨루는 경기.
- 25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함.
- 26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 몹시 교활한 여자를 이르기에도 한다.
- 27 몸이 크고 순백색인 오리과의 물새. 백조.

▶ 세로 열쇠

- 01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정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날. 6월6일.
- 03 물고기를 인공적으로 기르는 곳.
- 05 지난해의 바로 전 해.
- 07 모양이나 규모 따위를 줄여서 작게 함.
- 08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누울 ○○보고 다리 뻗는다.
- 09 될 만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희망.
- 10 몸에 살이 찌서 크고 뚱뚱함.
- 12 비합법적인 무력 기습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 5.16군사○○○.
- 14 망둑어과에 속하는 어종으로 낚시에서도 가장 흔하게 잡히는 바닷물고기. 송어가 뛰니까 ○○○도 뜬다.
- 15 한 번 물음에 대하여 한 번 대답함.
- 16 죽은 아들. 또는 죽은 자식.
- 17 거짓이 없이 참된 것. 또는 그런 사람.
- 18 꽃을 심은 동산. 꽃을 파는 가게.
- 19 화물자동차.
- 22 어떤 대상에 대하여 애착을 느끼는 마음.
- 24 상하가 분리되어 브래지어와 팬티로 이루어진 수영복.

출제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상상을
그 이상으로 향해!

SHIDAO International Ferry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DAILY SERVICE



석도국제훼리(주) www.shidaoferry.com

군산 tel. 063-441-1200 fax. 063-441-1220

석도 tel. +86-631-728-6666 fax. +86-631-728-9399

서울 tel. 02-725-7811 fax. 02-725-1671

하역/운송사(주)제범 tel. 063-461-1803 fax. 063-461-1836

일상이 되다 습관이 되다 행복이 되다

평소대로 쓸 뿐인데 자동저축 효과
체크카드 결제 자투리 저축
나의 목표달성을 도와주는
Daily 절약 재테크 저축



은행 방문없이 **비대면** 첫거래 가능

(1) QR코드로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를
통해 '바로 입출금통장' 개설



(2) 바로 입출금통장 개설 후
'데일리플러스 자유적금' 가입

KDB산업은행 데일리플러스 자유적금



가입대상 개인(개인사업자 및 임의단체 제외) 1인 1계좌

가입기간 1년~3년(연 단위)

가입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납입금액 월 100만원 이내 자유적립식

*상기 이율은 2018.7.1자 세전 기준이며, 시장금리 동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www.kdb.c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07-001호(2018.07.03-2019.07.02)